

코스피 2416.96 (+28.61)	코스닥 813.43 (+10.90)
금리 (연·% 기준) 3.284 (-0.010)	환율 (원·달러) 1307.70 (-3.50)

[뉴스]
현대중공업
대형엔진 생산
2억마력 달성 기념식
02



中에 수십조 들인 K반도체, 셈법 분주... 추가완화 절실

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산 넘어 산'
中 5% 증설 등 극히 제한적 완화
韓기업 한숨 돌렸지만 우려 여전
제재대상기업과 공동연구도 막아
업체, 신중검토 후 신청여부 결정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규제를 일부 해소했지만, 여전히 갈길이 멀다는 분석이다. 추가 규제 완화 여부에 투자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부여하는 의무다. 중국 등 '우려대상국' 투자를 제한하고 기술을 공유해야 하는 등 제약을 뒤 미국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발표한 세부 규정은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다소 완화됐다. 특히 우려대상국에 대한 투자를 완전히 금지하지 않고, 10년간 반도체 생산시설을 5% 이

상늘리지 못하도록 축소했다. 산업부는 생산설비 기술과 공정 업그레이드 투자, 기존 설비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교체 등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 현지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을 주요 생산 기지로 운영하고 있다. 20여년간 수십조원을 들였으며, 각각 낸드 플래시 40%, D램 50%를 생산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를 통해 다렌에서 낸드 공장도 운영하고 있다. 전문화적인 규모가 지급되는 미국 반도체 보조금을 포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됐을 정도다.

반도체 업계는 일단은 긍정적이라는 분위기다. 중국 공장을 한동안이나마 지속할 수 있는 수준인데다가, 가드레일 규정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가드레일 조항을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여전히 부담은 적지 않아 보인다. 투자 허용 수준이 극히 제한적인 데다가 첨단 장비 도입도 쉽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 현지 생산 물량 대부분을 소비하는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잡음이 불가피하다. 미국이 다음달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을 떠날 수도 없다. 이미 적지 않은 투자가 이뤄진 곳인데다가,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막대한 투자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해서다.



메트로신문 '100세 플러스 포럼' 성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3 100세 플러스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SK하이닉스 우시캠퍼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새로운 투자 계획이 확정되긴 했지만, 단기간에 중국 생산 기지를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평가다.

이 뿐만 아니다. 미국은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면 제재 대상 기업과 공동 연구나 특허사용계약 체결도 금지했다. 중국 기업들과 사실상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반도체 수요가 많은 나라가 중국인 만큼, 영업 활동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계는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추후 협의 결과

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한국 정부와 반도체 업계도 힘을 모으고 있다. 산업부는 23일 방한하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 담당 주요 실무진과 협의를 하겠다는 계획, 윤석열 대통령도 다음달 방미를 통해 협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YMTC에 19억달러를 추가 지원하며 반도체 굴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내보였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부동산 공시가격 전국 18.6% 하락 보유세 부담 감소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보유세 등 각종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건강보험료도 내려가고,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국가장학금 등의 수혜 대상도 늘어난다. <관련기사 2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 1206만호, 연립주택 53만호, 다세대주택 227만호 등 총 1486만호가 대상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복지제도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돼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

실제 지난 5년 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주택가격과 시세 반영비율 상승의 영향으로 총 63.4% 급등,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 부담이 일차적으로 경감됐고,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세금 부담 능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 부담을 추가 경감했다"고 설명했다. <2면에 계속>

/세종=원승일 기자 won@

반도체 육성 빨라진다... 대기업 투자 세액공제 15%로 ↑

여야 협치로 'K-칩스법' 기재위 통과
중소는 현행 16%서 25%로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국가전략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세제혜택을 받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2일 의결했다.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위기에 놓인 한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논의된 개정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K-칩스법은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올해에 한해 신성장, 원천기술 및 일반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상향하고, 모든 통합투자증가분의 10%를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도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 등이지만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면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도 법률로 국가전략기술로 정한다.

여야 합의로 K-칩스법에 기재위 조세제정소위원회 통과한 만큼,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K-칩스법은 무난히 의결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K-칩스법이 통과되자 감사를 표하며 "최근 국내 설비투자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각국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경쟁력 제고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는 가운데 오늘 통과된 조특법 개정안이 반도체 등 국내 전략기술과 기업들의 설비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원들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급변하는 국제 경제 질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새로운 전쟁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대해 끌려가고, 이상황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기재부가 적극성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측면에서 지금이 특이점이라고 보고 있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뿐 아니라 미래차로 전환되는 과정은 상상은 초월할 정도로 빠르다"며 "기재부가 '야당이 주장하니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넣어주자'고 해놓고 구체적인 기술들을 시행령에서 이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6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민주,尹 '주60시간' 발언 비판... "줄속 개악 고백"
▲ MB, 천안함·연평해전 희생자 묘역 참배... 사면 후 첫 외부행보 /사진 뉴시스

▲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해 6월에 연합 화력격멸훈련
▲ 한 총리 "광주·전남 가뭄, 범정부 지원... 장기 대책 마련할 것"



▲ 권영세 통일부 장관, 취임 후 첫 일본 방문 /사진 뉴시스
▲ 김기현, 이재명 기소에 "당대표 수행할 수 없지 않나"

33년 부동의 1위... 현대중, 대형엔진 '2억 마력' 달성 쾌거

울산 본사에서 2억마력 달성 기념식
 쏘나타급 중형차 125만대 출력효과
 친환경 메탄올·디젤 이중연료 엔진
 머스크의 1.6만톤 급 컨선에 탑재
 대형엔진 세계 점유율 36% 달해



현대중공업이 22일 울산광역시 본사 엔진조립공장에서 '대형엔진 생산 2억마력 달성 기념식'을 열었다. 7만 4720 마력급 선박용 대형엔진 '8G95ME-LGIM'의 모습. /현대중공업

HD현대의 조선 계열사인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대형엔진(2-Stroke) '2억 마력'을 달성했다. 대형엔진 생산 누계 2억 마력 돌파는 현대중공업이 1979년 첫 대형엔진을 생산한 지 44년 만의 쾌거다.

22일 현대중공업은 울산 본사 엔진조립공장에서 '대형엔진 생산 2억 마력 달성 기념식'을 가졌다. 7만 4720 마력급 선박용 대형엔진 '8G95ME-LGIM'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대형엔진 생산 누계 2억 6만 6277 마력 달성을 기념했다고 밝혔다. 2억 마력은 쏘나타급 중형차 약 125만 대가 내는 출력과 같다.

2억 마력을 달성한 엔진은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메탄올과 디젤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탄올 이중연료(Dual-Fuel)' 엔진이다. 한국조선해양이 개발한 메탄올 연료공급시스템(LFSS)이 장착된 해당 엔진은 세계 최초 초대형 메탄올 추진선인 머스크(Maersk)의 1만 6000TEU급

컨테이너선에 탑재될 예정이다.

◆ '엔진'으로 조선업 미래 내다본 현대중
 빠른 조선사업 시장 판단 덕분에 현재의 현대중공업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박의 심장인 엔진을 자체 제작해야 한다고 보고 1976년 엔진 사업에 착수했다. 1978년 당시 단일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연간 생산 능력을 갖춘 90만 마력의 대형엔진공장을 준공했다.

현대중공업은 1979년 9380마력급 엔진 1호기를 성공적으로 제작하며 세계

엔진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1992년 1천만 마력, 2005년 5천만 마력에 이어 2010년 9월 세계 최초로 1억 마력 고지에 올랐다. 현대중공업 측은 "2억 마력은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대형엔진을 생산한 메이커보다 8천만 마력 이상 많은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1989년부터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지난해 기준 대형엔진 세계 시장 점유율은 36%다. 새로 발주되는 선박 10척 중 약 4척에는 현대중공업이 만든 엔진이 탑재되는 셈이다.

현대중공업은 엔진시장에서 높은 점유

율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은 차별화된 기술력을 꼽았다. 현대중공업은 2001년 세계 최초로 전자제어 대형엔진을 제작했고, 2007년 세계 최대인 10만 8920 마력급 엔진을 성공적으로 제작하는 등 수많은 세계 최초·최대의 기록을 만들어 왔다.

◆ '친환경 엔진'과 '선박용 중형엔진' 시장 선도

현대중공업은 친환경 엔진 개발을 선도하며 탄소중립 시대도 대비하고 있다. 2012년 세계 최초로 '이중연료 엔진 패키지'를 개발했으며, 2015년 메탄올 연료 대형엔진 1호기를 만든데 이어 이번에 세계 최초 초대형 메탄올 엔진도

제작했다.

현재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대형엔진의 60% 이상이 LNG, LPG, 메탄올, 에탄 등 친환경 연료 엔진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에는 LNG·수소 혼소(混燒)엔진 실증에 성공하며 수소 연료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측은 "암모니아 연료 엔진 등 차세대 연료 엔진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선박용 중형엔진(4-Stroke) 분야에서도 세계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올리며 1위 기업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2000년 8월, 10년의 연구 끝에 독자 기술로 개발한 '힘센엔진'은 보수적인 엔진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을 뚫고 세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현대중공업은 2011년부터 해외 업체의 라이선스 제품 대신 중형엔진의 100%를 힘센엔진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생산 누계 1만 대를 달성했다.

한주석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대표는 "현대중공업은 지난 40여 년간 고품질 엔진 제작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조선강국으로 우뚝 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기술력을 강화해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반포자이 보유세 1386만원 → 882만원... 2년전 수준

(전용 84㎡)

국토부, 올 공시가격 18.61% 하락
 부동산값 하락·공시가 현실화 영향

아크로리버파크 84.97㎡ 공시가격
 26억6700만원→24억7700만원
 보유세 25.51% 내린 1078만원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18.61%로 역대 최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2023년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대부분 지역에서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18.61% 떨어진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간 과열되었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노력 등 영향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71.5% → 69.0%)으로 낮춘것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재산세 60→45%, 종부세 95→60%)하고,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공제금액을 인상(6억원→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12억원)해 보유세 부담을 대폭 완화한 영향도 받았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부동산

고가·준고가주택 보유세 변화

단지명·위치	전용면적	보유세변화(원)	변동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4㎡	2022년 1386만 2023년 882만	-36.33%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97㎡	1477만 1078만	-25.51%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84.93㎡	1456만 830만	-42.95%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82.61㎡	1050만 438만	-58.21%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6㎡	412만 252만	-38.70%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84.89㎡	598만 435만	-27.19%

자료/신한은행 WM사업부

팀장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대표적인 고가주택인 '반포자이' 전용 84㎡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26억500만원으로 보유세를 약 1386만원 냈다. 그러나 올해는 공시가격이 22억46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보유세도 882만원 가량으로 하락했다. 작년 대비 36.33% 낮아진 가격이다.

인근 '아크로리버파크' 84.97㎡ 역시 공시가격이 지난해 26억6700만원에서 올해 24억7700만원으로 하락했고, 보유세도 같은 기간 약 1447만원에서 25.51% 낮아진 1078만원으로 떨어졌다. 특히 '래미안퍼스티지' 84.93㎡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26억7600만원으로 3개 단지 중 가장 높았으나 올해는 21억8000만원으로 가장 낮아졌다. 보유세 역시 약 1456만원에서 830만원으로 가장 크게(-42.95%) 떨어졌다.

서울지역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 82.61㎡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22억66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15억1700만원으로 대폭 떨어졌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약 1050만원에서 438만원으로 절반 넘게(-58.21%) 하락했다.

이러한 고가단지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2020년 수준보다 보유세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포자이 -20.22% ▲아크로리버파크 -20.67% ▲래미안퍼스티지 -35.03% ▲잠실주공5단지 -47.60% 등 각 단지의 보유세는 모두 최소 20% 이상 떨어졌다.

서울 지역 내에서 준고가 단지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5978㎡는 보유세가 지난해 약 412만원에서 올해 252만원으로 38.70% 떨어졌고, 이촌동 '한가람' 84.89㎡ 보유세는 약 598만원에서 435만원으로 27.19% 하락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역시 2020년 보

유세(343만원)와 비교해도 26.44% 가량 세 부담이 줄어들었다. 다만 이촌동 한가람아파트의 경우 2020년보다 5.03% 정도 보유세가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단지별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2023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45%, 종부세 60%이지만, 실제 올해 비율은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5%였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내달 중으로 더욱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60%로 낮췄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80%로 다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여부는 현재 전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 역시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완회시키겠다는 기본적인 정책 의지만 있을 뿐 가액비율을 다시 회귀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었다"며 "아직 그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80%로 시뮬레이션을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대환 기자 kdh@

>> 1면 '부동산 공시가격'서 계속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상대 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올 건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3.9% 감소"

올해 건강보험료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 또한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출해서다.

추 부총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 소득과 재산을 토대로 건보료가 결정되는데, 올해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은 전년 대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내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도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전망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재산가액 2억 4000만원 이하로 연 소득 2200만원 이하인 단독 가구나 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에 지급된다. 재산가액 기준이 낮아져 그만큼 수급 대상도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복지제도 수혜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소득·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는 국가장학금 대상이 된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금융당국 지배구조 개선 압박에도 사외이사 교체 ‘찝끔’

4대 금융지주 주총 돌입

신한·우리, 차기회장 내정자 표결
기존 사외이사 70% 이상 재추천
지난해 최대 실적... 배당 기대감 ↑

신한금융을 시작으로 주요 금융지주 주주총회가 일제히 개최된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의 70% 이상이 재추천되면서 사외이사 교체는 예상보다 적을 전망이다. 민간 금융회사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견제구’가 먹히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3일 신한금융, 24일 KB·우리·하나금융 등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은 이번 주총에서 차기 회장으로 뽑힌 진옥동 내정자와 임종룡 내정자를 선임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두 회장은 주총 안건이 통과하면 차기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NH농협금융은 올 초 지주 회장과 행장을 모두 교체했다. 이달 중 열릴 주총에



4대 금융지주 사옥 전경.



/각사

서 신입 이석준 회장과 이석용 농협은행장이 새 수장으로 공식 선임된다.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건은 사외이사 선임이다. 금융지주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는 기존 사외이사의 72%(25명 중 18명)가 재추천된 상태다. 이 가운데 새로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는 7명이다.

지주사별로 재선임 인원을 살펴보면 KB금융은 이사 후보에 오른 6명 중 3명, 신한금융은 8명 전원, 하나금융은 8명 중 6명, 우리금융은 3명 중 1명이다.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면 상법 시행령상 사외이사 임기 6년(KB금융은 법인 정관에 따라 5년)을 채우는 관례를 고려할 때 재선임 된 이들의 연임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이사회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상황에서도 기존 사외이사 대거 교체는 없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민간 금융회사란 점에서 이사회 구성이나 특정 인물을 규제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영진과의 친소 관계로 이사회에 장기 잔류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사회 자체에서 임기

를 어떤 식으로 본인들이 절제하든가 하는 것들을 자율과 규제방법으로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4대 금융지주가 이사회에서 논의한 안건 총 128건 가운데 부결된 안건은 없었고, 반대 의견을 낸 것도 전체 4건에 그쳤다.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해 ‘직무유기’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역시 금융지주 주총 안건 관련 보고서를 통해 사외이사 연임 후보를 선임에 반

대권 입장을 밝혔다.

지난 라임사태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은행권 채용 비리, 은행권 대규모 횡령 사태 등 대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이사회가 대응 없이 넘어갔다는 점에서 연임 자격이 없다는 의견이다.

주총 이후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사이에 마찰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역시 사외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겠다고 강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당국과 이사회 간 직접적인 소통 정례화, 은행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작동 기능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실태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사회 독립성과 장기 임기 문제의식 개선 의지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연임 성공 시 비판을 받았지만 실태점검을 통해 향후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지주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면서 주주환원으로 적극적인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예고한 바 있다./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주주배당 늘린 식품업계... 오너일가 보수 ‘정충’ “EU 공급망 자체감사, 아웃리치 지속 전개”

고물가 등 어려움에도 배당 확대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 대주주 수혜

주요 식품기업들이 배당을 전년대비 큰 폭으로 올리면서 오너 일가의 보수도 대폭 인상됐다.

식품업계는 지난해부터 배당 정책을 강화해오고 있다. ESG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G(지배구조) 분야의 평가 지표 중 하나인 주주친화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배구조가 기업의 중요 평가 잣대가 된 만큼 주주가치를 높여 소액 주주를 달래고, 기업 가치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는 고물가 기조에도 견고한 실적을 낸만큼 배당 규모를 늘린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은 오너일가들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CJ와 주요 계열사의 경우 이재현 회장은 지주사에서 106억4400만원, CJ제일제당에서 72억9400만원, CJENM에서 41억9800만원 등 약 221억3600만원을 받았다. 직전년도의 218억6100만원에 비해 1.3% 증가했다. 이 회장의 누나인 이미경 부회장은 CJENM에서 40억8100만원을 수령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지난해 롯데제과와 롯데쇼핑, 롯데칠성 등 계열사 3곳에서 54억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롯데제과에서는 급여 20억5000만원, 상여 3억6600만원 등 총 24억16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는 전년(21억8500만원)보다 2억310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롯데쇼핑에서는 급여 15억9000만원, 상여 1억5000만원 등 17억4000만원을 받아 전년(15억원) 대비 2억4000만원을 더 지급 받았다. 롯데칠성 음료에서는 급여 10억9000만원과 상여



이재현 CJ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원 농심 회장,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1억6000만원 등 12억5000만원을 받으면서 전년(11억3300만원)보다 1억1700만원을 더 수령했다.

신 회장은 롯데지주·롯데케미칼·호텔롯데·롯데물산 등에서 추가로 연봉을 지급 받게 되면 총 100억원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창립 57년 만에 처음으로 연 매출 ‘3조 클럽’에 입성한 농심의 경우 신동원 회장의 지난해 보수는 15억9573만원이다. 급여로 14억8100만원을, 상여로 1억1310만원, 기타 근로소득으로 163만원을 받았다. 이는 2021년 대비 14.46% 증가한 것이다.

농심은 최근 보통주 1주당 50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 농심은 2004년부터 19년째 4000원의 현금배당을 유지해왔으나 지난해 연간 매출 3조원을 넘어 서자 배당금을 상향 조정했다.

농심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한 3조1291억원을 기록했다. 해외 법인 매출이 25.0% 증가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국내 법인 매출도 14.6% 늘어났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8% 늘어난 1122억원, 당기순이익은 16.5% 증가한 1160억원으로 집계됐다.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의 지난해 보수도 전년보다 올랐다. 담 회장은 오리온으로부터 급여 13억3300만원, 상여금 14억5500만원 등 27억8700만원을 받았다.

전년보다 8.1% 오른 규모다. 오리온홀딩스로부터는 급여 6억8700만원, 상여금 7억4900만원 등 14억3600만원의 보수를 받았으며 전년 대비 7.5% 늘었다.

담 회장의 부인인 이화경 부회장도 오리온과 오리온홀딩스로부터 총 약 33억원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오리온에서 급여 10억3700만원, 상여 11억3100만원 등 21억6800만원을 받았는데, 전년보다 8.1% 늘었다. 오리온홀딩스로부터는 급여 5억3400만원, 상여 5억8300만원 등 11억1700만원을 받았다.

‘불닭볶음면 신화의 주역’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지난해 급여 11억원, 상여 9억3500만원 등 총 20억3500만원을 수령했다. 전년도 보수인 약 10억원보다 103.94% 증가한 액수다.

삼양식품은 22년 사업연도 배당금을 1주당 600원의 배당을 공시했다. 지난해 8월 주당 800원의 중간배당을 포함하면 총 배당액은 주당 14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배당액 1000원보다 40%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배당 총액도 75억3260만원에서 104억5584만원으로 29억2324만원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업들이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배당을 올렸다”며 “주주환원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산자부 공급망 TF 회의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법 대응 논의
“입법 예의주시... 우리기업 부담 최소화”

정부는 유럽연합(EU)의 역내 전략적 기술 제조 대기업 대상 공급망 자체 감사가 우리기업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관계부처, 산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EU 집행위가 지난 16일 발표한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NZIA) 초안과 관련 제1차 공급망TF 회의를 개최하고 민·관 합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EU 집행위가 발표한 두 개의 법안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우리 업계의 기회요인과 부담요인을 종합 평가,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진 통상전략지원관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팬데믹 봉쇄, 러·우 전쟁에 따른 공급망 위기 여파로 인해 EU는 핵심 원자재 및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EU 집행위가 발표한 두 법안 초안을 초기 분석한 결과,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같이 역외 기업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역내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 등 부담요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U는 법안을 통해 역내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는 고용인 500인 이상, 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세계 연매출 1억5000만 유로 이상의 전략적 기술 제조 대기업이 원자재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2년 1회 실시하고 이를 기업 내 자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통상전략지원관은 “다만,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 전략 프로젝트 등 기회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기업이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최종 법안까지 1~2년 소요되는 만큼 민관공동으로 지속적인 대 EU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현재 EU 집행위 초안에 명시된 내용들이 이미 우리 업계들이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EU에 진출해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될 소지는 낮다”면서도 “향후 EU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예의 주시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EU 집행위가 발표한 법안 초안은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우리기업들이 해택과 비용을 면밀히 분석해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카카오 평균임금 19% ↓, 네이버 이사보수한도 최대 반토막

건축경영 나서는 네카오

국내 정보기술(IT) 업계 대표 주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자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사 임금 삭감, 임직원 성과급을 줄임으로써 건축 경영에 돌입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급여·상여·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을 포함한 카카오의 지난해 평균 보수가 1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19% 줄었다. 네이버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1억 3449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4.13%가 증가했다. 하지만 그 폭은 이 전년도 26.03%에 비해 크게 줄었다.

◆경제 악화로 스톡옵션 행사 늦춰

주요 포털 기업의 임직원 평균 급여가 전년 대비 줄어들거나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서 얻는 수익이 줄어든 탓으로 분석됐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등 악재로 이들 기업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당수 임직원들이 스톡옵션 행사 시점을 늦춘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의 지난해 1인당 평균 급여액(급여·상여·스톡옵션 행사차익)은 1억



최수연 네이버 대표.

네이버

연봉협상 사측과 노측 갈등 고조
물가상승률 5.1% 밀돌아 반발

3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9.19% 감소한 수치다. 2021년의 평균 급여(1억 7200만 원)가 직전해(1억 800만 원)보다 22.38%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네이버의 지난해 1인당 평균 급여액은 1억 34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3% 늘었지만 직전해 증가폭(26.03%)에 비해서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스톡옵션 행사차익



홍은택 카카오 대표.

카카오

스톡옵션 제외 평균 9500만원
근무제도 등 부대안건 협의 진행

을 제외한 연간 급여 및 상여 등의 지급 총액은 3412억 9100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1인당 평균 급여액은 남성은 1억 400만원, 여성은 8200만원으로 평균 95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는 52.8%와 53.1%나 감소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차익이 이전 대비 크게 줄어든 것이다.

◆네이버 연봉 인상 놓고 노사 갈등

네이버는 사측과 노조측에서 제시하는 연봉 인상을 폭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측은 3.8%를 제시한 반면 노조측은 11%를 제시해 7.2%의 차이가 난다.

네이버측은 “물가 인상률과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3.8%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직원들은 “3.8%는 지난해 연간 물가상승률인 5.1%를 밀돌아 연봉 동결이나 다름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측에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임금 협상이 제대로 진척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네이버는 연봉 인상률이 카카오에 비해 낮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네이버와 카카오는 연봉 경쟁을 벌여왔다. 2021년 1인당 평균 급여가 카카오가 1억 7200만원인 반면 네이버는 1억 2915만원을 기록했다.

카카오는 올해 연봉 인상을 6%대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사 보수 한도 대폭 줄여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사에 대해 지급하는 보수의 최고 한도를 30~50% 정도 줄인다.

네이버는 22일 주총을 통해 이사 총 7명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최고 한도를 15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카카오도 이사 총 7명의 보수 한도를 120억원에서 80억원으로 30% 이상 낮추게 된다. 또 카카오는 임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회사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거나 치명적인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급제한 규정까지 신설하기로 했다. 네이버가 이사 보수 한도액을 삭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는 해외 자회사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진행된 경력사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앞두고 절차를 중단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결국 이들 업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빅테크 공룡기업들도 최근 인력 감축에 나서는 등 건축경영에 돌입했다. 아마존은 최근 9000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미 지난 1월 8000명을 해고한 데 이어 2차 구조조정에 들어선 것이다. 메타는 지난해 11월에 전체 직원의 13%의 인력인 1만 1000명을 해고했으며, 지난 14일에도 1만명을 해고할 계획을 밝혔다. 구글 모 회사인 알파벳도 지난 1월 전체 직원의 6%인 1만 2000명을 정리했다.

/세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애플페이’ 도입... “젊은층 환영” vs “자영업자 머뭇”

NFC단말기 교체 부담 느껴
‘수수료’ 결제액 최대 0.15%
신세계, 당분간 검토는 없어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국내 정식으로 상륙하면서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애플페이 사용 경험기가 속속 퍼지고 있다. 하지만 애플페이를 ‘환영’하는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영업자들은 애플페이 사용을 위해 단말기를 바꾸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신세계그룹의 경우는 애플페이 도입을 당분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주춤’, 신세계는 ‘아직’

국내 오프라인 간편결제 1위 사업자 삼성페이가 마그네틱 보안전송(MST)·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 모두를 지원하지만, 애플페이는 주파수 이용 NF

C 방식만 지원한다. 국내 NFC 단말기 보급률이 10% 수준이기에 결국 애플페이의 대중화는 NFC 단말기 보급률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NFC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 자영업자들은 애플페이 소식에도 당장 급하게 기기를 바꿀 계획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종로 부암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아직까지 애플페이를 찾는 고객들이 많지 않다”며 “자영업자로서 결제 단말기를 바꾸는 게 비용 측면에서 고민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라고 할지라도 실물 카드를 한 장씩은 들고다니기 때문에 애플페이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고객이 발길을 돌릴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애플페이가 부과할 ‘수수료’도 자영업자들에게는 부담이다. 애플은 한

국에서도 애플페이 결제액의 최대 0.15% 정도를 수수료로 챙길 계획으로 전해졌다.

신세계그룹은 이번에도 새로운 결제 시스템 도입에 신중한 모습이다. 신세계그룹 계열 가맹점은 편의점 이마트 24를 제외하고 스타벅스, 신세계백화점 등을 필두로 애플페이를 도입하지 않는다. 신세계그룹의 이러한 움직임은 삼성페이 출시 때도 있었던 일이다. 신세계그룹은 삼성이 2015년 8월 삼성페이가 시장에 나올 때도 출시 후 1년 4개월이 지난 2016년 12월에서야 삼성페이 결제를 시작했다. 스타벅스가 애플페이와 제휴하지 않은 배경에는 신세계그룹 간편결제 서비스인 ‘SSG페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젊은 층이 찾는 애플페이, 사용 가맹점 어디?

애플페이 가맹점들은 애플페이 도입

하며 빠르게 고객들을 맞이했다. 애플페이가맹점 중 하나인 세븐일레븐에서 애플페이로 물건을 구입하고 “어떤 고객들이 애플페이를 사용하냐”고 물었다. 애플페이 결제를 진행한 점원은 “아이폰을 이용해서 애플페이로 결제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젊은 고객들이다”라며 “유동인구가 젊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라면 더 빠르게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애플페이 상륙 소식에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다. 현재는 대부분의 편의점과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코스트코, 홈플러스 같은 백화점·마트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스타벅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커피 전문점(▲투썸플레이스 ▲빽다방 ▲이디야 ▲할리스 ▲커피빈 ▲폴바셋 등)에서도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CU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해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 모습. /허정윤 기자

이 밖에도 외식 전문점, 호텔·리조트, 온라인 결제, 생활가전, 주유 등 애플페이 가맹점 마크가 붙어있는 NFC 기기를 소지한 곳에서는 애플페이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 정확한 애플페이 사용 가맹점은 현대카드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공정위, 효성 부당지원 혐의 ‘사실상 무혐의’ 심의종료

전원회의서 사실관계확인 곤란 결론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여간 조사한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의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혐의가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됐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효성의 진흥기업에 대한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에 대한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건을 심의한 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려지는 ‘무혐의’와 달리 위법 여부 판단이 불가할 때 내려지는 조치로, 제재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무혐의 결론과 같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효성이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을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므로 범위 밖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검찰 격)이 혐의에 대해 조

사를 벌였으나, 전원회의(1심 법원 격)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공정위는 2020년 효성측의 계열사 부당지원 신고를 받고 2021년 4월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심사관 조사에서는 효성(2018년 6월 4일 이후 효성중공업)이 2012~2018년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된 계열사 진흥기업에 건설사업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기업 대주주인 효성은 2011년 5월 채권단과 경영개선약정을 체결하고, 공사수주 연도별 매출액 목표 등 경영실적 달성에 대한 책임을 분담키로 했다. 진흥기업은 이듬해 1월부터 기업 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워크아웃으로 전환,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인해 민간 PF(프로젝트파이낸싱) 건설공사 단독수주가 어려워지자 경영실적 달성을 위해 효성 측과 공동수주하는 형태로 영업활동을 계속했다.

효성의 위법혐의는 2가지다. 하나는 2012~2018년 중 효성과 진흥기업이 공동수주한 민간 PF 건설사업 27건 중에

서, 효성이 주간사이면서도 지분율 50% 이상을 진흥기업에 배정한 9건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해당 건에 대한 진흥기업의 기여도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관련 공사 매출액은 5378억원, 매출이익은 761억원 규모다.

심사관은 이같은 공동수주행위와 중간하도급 제공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지원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했다.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선 효성측이 진흥기업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했다’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시작점

눈앞에 펼쳐질 ICT세상, SK하이닉스가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김기현 지도부, 지지율 '흔들'... 민생행보·여론전 총력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근로제 개편안 등 해명
내일 MZ세대 노조 '맥주 회동'
야당 중심 대일 비판여론 반박

국민의힘이 근로시간제 개편안, 한일정상회담 관련 논란으로 인한 비판 여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주69시간' 논란이 불거지자 적극적인 해명을 하는 한편, 보안 대책도 마련에도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한일정상회담을 둘러싼 '친일' 논란에도 적극적으로 비판하며 대응하고 있다. 최근 당 지지율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기관 알앤씨치가 뉴스핌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4명에게 실시해 22일 발표한 국민의힘 지지율(3월 19~20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은 38.7%였다. 같은 조사에서 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 답변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시스

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5.3%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격차는 직전 조사(3월 12~13일, 9.7%포인트)보다 좁혀진 6.6%포인트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와 비교할 때 민주당은 2.4%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의 경우 0.7%포인트 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은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여론조사 결과 ▲60세

이상(56.3%, 5.1%포인트 ↑) ▲대구·경북(53.9%, 2.2%포인트 ↑) ▲부산·울산·경남(49.5%, 2.2%포인트 ↑) 등 전통적인 지지층 중심으로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면서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세인 여론조사도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3명에게 실시해 22일 발표한 국민의힘 지지율(3월 19~20

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은 36.3%였다. 이는 직전 조사(3월 11~13일)과 비교하면 2.0%포인트 내린 결과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5.7%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 지지율은 0.1%포인트 올랐다. 해당 조사에서 양당 지지율 격차는 9.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의 당 지지율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근로시간 개편이나 한일정상회담 관련 논란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당은 관련 논란 해명에 집중하고 있다.

김기현 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 정부·여당, 대통령의 입장이 엇갈린다는 지적에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 사이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다 합리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을 잘 보장하고 쉬는 시간도 잘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그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인 김병민·장예찬 최고위원도 오는 24일 MZ세대 노동조합과 '맥주 회동'을 한다. 최근의 논란을 수습하는 한편, 의견도 청취할 것이라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열어 MZ세대 의견 등에 대해 청취한 바 있다.

이 밖에 한일정상회담 관련 야당 중심의 반일 비판 여론에 대해 윤상현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중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정적 평가가 많은데 개선될 수 있다고 기대하나'는 취지의 질문에 "개선된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 국민의 80%가 한일관계 정상화에 반대했으나 결국 이 결단을 여야가 칭송한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별위원회’ 출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모두 건강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데이터 기반 경제 분석 전문가인 이수형 경제·계층분과위원을 위원장으로, 노동·건강·복지·경제정책 등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9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국민통합위원회

민주당, 당헌 유권해석... 대표 직무정지 귀추

檢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

당헌 80조 논의... 친명-비명 이견

검찰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당헌 제80조 적용 여부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오전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에 대한 기소는 수차례 말했던 것처럼 답정기소(답을 정해 놓은 기소)다.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다만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소와 체포 영장 표를 벌이면서 시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요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최고위원회의

에서는 당헌 23조 1항과 80조 3항에 따라 당헌 80조 유권해석의 건을 차기 당무위 안건으로 부의하고 차기 당무위를 이날 오후 5시에 당대표실에서 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헌 제80조는 당사무총장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제80조 3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조항을 만들어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지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예고하고, 언론에 공소장 내용을 슬슬 흘리며 다시 균형을 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비이재명계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당헌 80조 적용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결과를 정해놓고 적용 여부를 짜맞춘 선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쌀값 정상화 지지부진... 양곡법 '누더기' 전략

여야, 개정안 처리 두고 줄다리기
농민단체 반발... 전면 개정 촉구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개정안이 사실상 누더기 법안이 됐다.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산지 쌀값(20kg 기준)이 전년(2021년) 수확기 대비 20.6%가 하락하는 등 가격 폭락 사태가 이어지자 정치권 논의 테이블에 본격적으로 올랐다.

지난해 8월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돼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등에는 의무적으로 초과생산량의 일부를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공급과잉 구조가 더욱 심화 및 쌀값의 지속적 하락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막대한 재



하원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현행 양곡관리법보다 후퇴한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원(매년 1조원 이상)의 소요 ▲식량안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등을 주요 반대 사유로 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다.

이 같은 의견 차이로 여야 협상이 진척되지 않자,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본회의에 직회부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1, 2차 중재안을 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의무매입 조항이 남아있을 경우 수용할 수 없다는 입

장이며, 민주당은 김 의장의 1차 중재안을 수용한 만큼 '의무매입' 조항이 유명 무실해지는 2차 중재안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김 의장의 1차 중재안을 반영한 양곡관리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한편, 농민단체는 법안이 누더기가 됐다며 반발에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22일 김 의장의 2차 중재안을 정면 비판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는 중재와 합의를 집어치우고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하라"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장혜영 유일 반대 "대기업 세액공제 상승"

〈정의당 의원〉

>> 1면 '반도체 육성 빨라...'서 계속

홍영표·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공장을 전기차 활용 공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시설투자 세액공제하도록 해 대량 실업상태를 막아야 한다고 추 부총리에게 강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하이퍼트브, 항공우주 등 투자금이 막대하게 필요한 미래형 이동수단 지원에도 기재부

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배준영 의원은 "미래로 갈수록 산업과 기술이 복잡 다단해지면서 칸막이가 없어지고 있다. 현재 도심항공교통(UAM)이나 개인용 비행체(PAV) 등을 이야기 하는데, 시속 1200km로 서울-전주를 주파하는 하이퍼트브도 미래형 이동수단"이라며 "신성장, 원천기술 분야에 항공우주라고 돼 있는데, 항공우주 산업은 반드시 성공 담보가 안되기 때문에 투자

를 많이 해야 한다. 투자를 많이해서 실질 입을 가능성도 많다.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미래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때, 너무 항공우주분야에 칸막이를 치지 말고 동일 잣대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K-칩스법 표결 과정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며, "작년(정기국회)에 (대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6%에서 8%로 올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한 마디로 다시 상승시켜줬다"고 비판했다.

/박태홍 기자

샘플하우스 오픈

제주도 최고급 모던 하우스 - 안트레힐

사명

우리가 잊지말아야 할 분명한 사명 하나.
우리는 이 땅에 괴롭기 위해 불행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
모두 행복하세요!

드라마 '우리들에 블루스' 촬영장 인근



| 문의방법 |

- 문자를 주시면 실 동영상, 사진진과 특징점을 보내드립니다.
- 현장방문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보내 주시면 전화를 드립니다.

| 문의전화 |

010-6230-1828

함께 갈등없이 행복하게 사실분만 연락주세요 - 건축주 올림

가격

17억~2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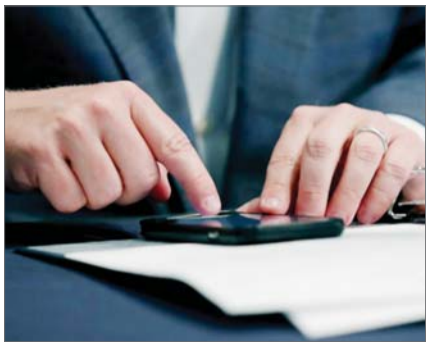
대지 약 190평

건평 약 77평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568번지 안트레힐

금리하락·IFRS17도입에 생보사 '저축보험' 애물단지 전략

작년 5.9% 고금리 상품 완판기록 올해 시장금리 하락에 2%대로 뚝 새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부채인식 저축보험 증가뎀 건전성관리 불리



생명보험사가 출시하는 저축성보험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뉴스시스

생명보험사가 내놓은 저축성보험의 인기가 시들해졌다. 지난해 연 5.9%의 고금리 상품을 선보이며 고객 유치에 나섰다지만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적용 등 저축성보험 상품 판매에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생보사의 저축성보험 공시이율이 연 2.15~2.9%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을 포함한 지방은행, 저축은행, 인터넷은행 등이 예금상품에 연 3~4%를 책정할 것과 비교하면 수익률이 뒤처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생보업계는 저축성보험 판매

에 몰두했다. 일부 생보사는 저축성보험에 연 5.9%의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출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완판 기록을 세웠다.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권이 연 4~6%대 예금 상품을 통해 자금을 흡수하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당시 금융업계에서는 연 6%의 저축성보험의 등장을 예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생보사의 고금리 저축성보험은 중장년층의 러브콜을 받았다. 통상 저축성보험의 경우 5년 만기 일시납으로 가입 기간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15.4%)를 면제한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이 은퇴를 준비하기에는 최적의 상품인 것.

보험사의 공시이율은 은행 예·적금 상품의 '금리'와 유사하다. 공시이율이 높을수록 가입자가 만기도래 후 수령하는 금액이 커진다.

생보업계는 한동안 지난해와 같은 저축성보험 상품을 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금리 하락과 함께 올해부터 새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저축성보험보다는 보장성보험 판매가 적합하기 때문이다.

또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저축성보험 상품을 내놓기 어려운 환경

을 맞이했다. 통상 생보사는 가입자를 통해 조달한 보험료를 은행채(AAA), 공사채(AAA), 기타금융채(AA), 기타금융채(A) 등을 통해 운용한다. 그러나 국고채 금리 하락으로 해당 채권의 금리 또한 함께 떨어졌다. 금리가 떨어지면 수익이 발생하는 채권 시장의 특성상 수익률을 높이기 어렵다.

지난해 4분기 국고채 금리는 연 4.46%까지 치솟았지만 5개월 사이 1.06%포인트(p) 하락하며 이달 연 3.4%를 기록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생보사들이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저축성보험 공시이율을 연 5.9%까지 제시하며 자금을 모았지만 시장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저축성보험의 수익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올해부터 보험사에 새 국제회계기준

을 적용하는 것 또한 저축성보험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해석이다. 새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저축성보험을 통해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부채로 책정한다. 과도한 저축성보험 증가는 건전성 관리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생보업계가 올해 암보험 상품 보장내역에 유사암, 재발암, 잔여암수술비 등을 확대하면서 경쟁력 제고에 나선 것 또한 새 국제회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체질 개선을 단행한 것이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보다 보장성보험이 적은 생보업권의 특성상 새 국제회계기준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다"며 "저축성 보험 비중을 줄이고 보장성 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신한銀, 부동산 PF시장 5500억 유동성 지원

재건축 사업장 자금조달 부담에 신규·브릿지론 만기연장 주선



신한은행 전경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재건축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규자금과 브릿지론 만기연장을 통해 5500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으로 재건축 사업장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신한은행은 신규자금지원 2500억원과 브릿지론 만기연장 3000억원으로 총 5500억원을 지원한다.

통상 거래의 신규자금지원은 다른 금융기관과 대주단을 구성해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신한은행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해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신규자금지원 중 일부는

채권보전에 있어 기존 대출 대비 후순위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PF사업장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추가 자금지원을 결정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3000억원 규모로 브

릿지론에 대한 만기연장도 주선한다. 최근 일부 브릿지론 취급 사업장은 공사도급 단가 인상, 금리 상승, 분양가 하락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인해 본 PF로 전환이 되지 못하고 만기연장도 거절돼 공매가 진행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브릿지론 연장을 통해 자금부족 등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시공사의 책임 준공 등의 조건을 감안해 본PF로의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부동산PF 시장 자금 경색으로 건설사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입주일자 연기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자금 지원을 진행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

폐기 앞둔 사무용 전자제품 재활용 추진 신창재 회장 '보험 명예의 전당 월계관상'

보험 브리핑

한화생명 자원순환 ESG 경영실천 교보생명 창립자 이어 두번째 수상

한화생명이 전기·전자제품자원순환을 통해 ESG 경영실천에 나선다

◆재활용으로 매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570톤(t) 감축

한화생명은 E-순환거버넌스와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실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정영호 한화생명 성장경영추진실장과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앞으로 장기간 사용해 폐기해야 하는 사무용전자제품을 E-순환거버넌스로 인계해 재활용한다. 신분증 스캐너 200여대, 프린터 1800여대 등을 수거해 재활용할 예정이다.

연간 약 172t의 폐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매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570t을 감축하고, 소나무 4120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

수거한 폐가전제품은 1개당 1000원씩 적립한다. 적립금은 추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비롯한 기부기관을 통해 아동 수술비 및 치료비 등의 목적으로 쓰인다.

정영호 한화생명 성장경영추진실장은 "한화생명이 금융사 최초로 자원순환 프로그램에 동참하며 폐전자제품 재활용에 나선다"라며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며 ESG경영이 주목받는 만큼 자원순환 동참 물결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최고경영자(CEO)가 '세계 보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신영호 창립자 이어 세계 최초 부자(父子) 현액

세계보험협회(IIS)는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2023 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교보생명

험 명예의 전당 월계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앞서 1996년 명예의 전당에 오른 故 신영호 교보생명 창립자이었던 두 번째 수상이다. 세계 보험산업 역사상 최초로 1,2세대 부자(父子) 기업인이 함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보험 명예의 전당 월계관상'은 보험 분야의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보험의 노벨상'으로도 불린다는 설명이다. 매년 IIS 임원 회의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조쉬 란다우(Josh Landau) IIS대표는 선정 이유로 "신창재 대표이사는 변화혁신과 통찰력 리더십, 사람중심 경영을 통해 '보험 명예의 전당'의 정신을 구현했다"고 했다.

제임스 비커스(James Vickers) IIS 아너스 프로그램 의장 또한 "신창재 대표이사의 이해관계자 경영을 통해 교보생명은 대한민국의 가장 성공적인 보험사로 성장했고, ESG 및 지속가능 이니셔티브의 선두 주자가 됐다"고 덧붙였다.

'보험 명예의 전당' 헌액식은 오는 11월 힐튼 싱가포르 오차드에서 열리는 '2023 글로벌인슈어런스포럼(IIS 연차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 대표는 "선천에 이어 보험 분야의 가장 영예로운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며, 보험의 정신을 함께 실천해온 교보생명 임직원들과 재무 컨설턴트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국민카드, 디지털·금융 등 ICT부문 신입사원 수시채용

카드 News

하나카드 외국인 관광객 소비패턴 비교 분석 단기체류자 카드이용액 4배이상 ↑

KB국민카드가 신입사원 모집에 나섰다.

◆보훈·장애 등 취업 보호 대상 별도 운영

KB국민카드는 2023년 ICT부문 신입 사원을 수시 채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시 채용은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서 진행된다.

▲디지털 ▲데이터 ▲금융 ▲IT 총 4개 직무가 대상이다. 특히, IT직무의 경우 일부 인원에 대해 취업 보호 대상을 별도로 운영한다.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학력, 성별, 연령, 전공 등에 관계 없이 KB국민

카드 채용 홈페이지에서 오는 30일 오전 11시까지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입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내달 3일부터 온라인 역량 검사를 진행한다. 서류 전형 합격자 대상 필기 전형은 같은달 23일로 예정하고 있다. 필기 전형은 국가직무능력(NCS)기반 직업 기초능력 평가와 함께 실기(코딩) 테스트를 운영한다.

최종 합격자는 필기 전형 후 실무자, 임원 등 단계별 면접 전형을 거쳐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금융인으로서의 주인 의식과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미래 가치 창조에 기여 가능하며 역량과 창의성을 갖춘 우수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하나카드가 지난해 해외관광객의 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했다.

◆홍콩, 싱가포르 관광객 소비 증가... 중국은 감소

하나카드는 22일 코로나19 확산 전후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패턴 비교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단기체류 외국인인 카드 이용금액은 4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침체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의 관광객 소비가 증가했다. 반면 국내 카드 이용금액 1위를 차지했던 중국 관광객의 소비가 급감했다. 아울러 일본 관광객 소비도 함께 감소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국가별, 지역별, 업종별 소비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지역별로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 지와 코로나19 유행 이전 대비 이용금액이 증가한 곳도 있다. 제주도의 경우 시도별 이용금액 순위가 기존 4위에서 2위로 상승했다. 이어 여수시의 이용금액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94.5%)했다.

/김정산 기자

KG모빌리티 “EV·자율차·AI 등 미래기술 드라이브 건다”

쌍용자동차, 35년 만에 사명 변경

기술개발·적용 등 이동서비스 집약 기업 정상화로 올해 흑자전환 목표 서울모빌리티쇼 통해 방향성 소개 인증 중고차 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



쌍용차 평택공장 전경.

쌍용자동차가 KG모빌리티로 사명을 변경하고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새 출발에 나선다. 이번 사명 변경으로 35년 역사를 이어온 쌍용자동차라는 이름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쌍용차는 22일 평택 본사에서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정용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련 임직원 그리고 주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KG 모빌리티(KG Mobility)로 사명 변경을 확정했다.

KG 모빌리티는 1954년 1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자동차 회사인 하동환자동차제작용소 출발해 1977년 동아자동차 그리고 1988년 쌍용자동차 이후 35년 만의 새 이름으로, 70여 년의 자동차 역사를 갖고 있는 명실

공히 대한민국 SUV 대표 기업이다.

모빌리티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와 판매에 국한하지 않고 전동화,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등 미래지향적인 기술 개발과 적용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이동성 서비스 제공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KG 모빌리티는 앞으로 새로운 자동차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EV 전용 플랫폼,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자율주행차, AI 등 모빌리티 기술분야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지난해 8월 KG그룹이 인수한 이후 4분기

매출 1조527억원, 영업이익 41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 흑자는 6년, 매출 1조원 돌파는 4년만에 이뤘다. 올해는 흑자전환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쌍용차는 KG모빌리티로의 출발을 서울모빌리티쇼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달 3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전기자동차 토레스 EVX를 비롯해 KR10, O100, F100 등 다양한 디자인 콘셉트 모델 공개를 통해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변화를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다.

사명 변경과 함께 새로운 브랜드 슬

로건 ‘Go Different. KG MOBILITY’도 소개했다. 이는 쌍용차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 그리고 앞으로 도전해 나갈 미래 방향성을 담고 있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독자기술로 사륜구동차 시대를 열며 대한민국 최초로 SUV 풀 라인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SUV 명가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KG 모빌리티로의 사명 변경을 시작으로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도전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G 모빌리티는 사명 변경과 함께 인증 중고차 사업과 특장 사업 등 다양한 신규 사업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인증 중고차 사업은 5년·10만km 이내의 KG 모빌리티(쌍용차) 브랜드 차량을 매입해 성능 검사와 수리를 거쳐 품질을 인증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판매와 정비 조직 및 체제 등 사업준비를 완료한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또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전동 사이드 스텝과 데크탑(Deck-Top) 등 자동차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용품 사업 강화와 함께 특수 목적의 특장차 제작과 판매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KG 모빌리티 관계자는 “35년 만에 사명을 변경하고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첫발을 뗐다”며 “앞으로 새로운 자동차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EV 전용 플랫폼 개발과 SDV, 자율주행차, AI 등 모빌리티 기술 분야에 집중해 미래 모빌리티 동반자로서 존경 받는 기업, 자랑스런 회사로 성장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화학, 中 염호리튬사업에 RO필터 공급

리튬 생산 필요에너지 획기적 감축 경쟁사 제품보다 내구성도 뛰어나



LG화학 청주공장 RO필터 생산라인에서 직원들이 테스트를 마친 수처리 필터를 살펴보고 있다. /LG화학

LG화학이 중국 최대 염호 리튬 추출 프로젝트에 RO필터(Reverse Osmosis Membrane)를 공급했다.

LG화학은 22일 중국 중신(CITIC) 그룹의 귀안(Guonan) 리튬 추출 프로젝트에 RO필터 1만여 개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중신 그룹은 중국의 대형 국유 기업으로, 올해 칭하이성에서 본격 가동에 들어간 귀안 프로젝트는 중국 최대 규모 염호 리튬 추출 사업이다.

리튬 추출 프로젝트를 운영(EPC, 엔지니어링, 조달, 건설)하는 칭하이위안(TUS-Qingyuan)은 LG화학의 RO필터 등을 활용해 연간 2만 톤의 탄산리튬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는 전기차 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다. 여과 장치를 활용한 리튬 추출 프로젝트로는 세계 최대 생산량이다.

RO필터를 활용하면 리튬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염호에 녹아있는 리튬을 얻기 위해서는 물을 증발시켜 농도를 높여야 하

다수의 중국 리튬 추출 프로젝트에서 LG화학의 제품을 사용 중이다.

중국의 9대 염호 리튬 추출 사업 중 5개는 RO필터 방식이 쓰인다. 중국 RO필터 시장은 매년 8% 이상 성장해 2025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2조 2000억원(119억 위안)에 이를 전망이다. LG화학은 중국과 남미의 다른 염호 리튬 프로젝트에도 RO필터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다 효율적인 리튬 추출을 위해 LG화학은 고려대학교와 손잡고 차세대 리튬 직접 추출(DLE, Direct Lithium Extraction) 공정용 RO필터도 개발하고 있다. 염호에서 리튬을 직접 추출하는 공정으로, 기존 수개월 이상 걸리던 리튬 농축 과정을 몇 시간 수준으로 단축하는 기술이다. LG화학은 이 과정에서 리튬의 회수율과 순도를 높이고 내구성도 향상시킨 RO필터 소재를 연구 중이다. 리튬 직접 추출이 본격 적용되면 공정이 단순해지고 추출 효율은 높아지지만, 리튬 생산 과정에서 환경오염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허정운 기자 zelkova@



한국지엠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가성비 갑’ 트랙스 크로스오버 첫 선

한국지엠 쉐보레

소형SUV 성능·가격 새 기준 제시 트림별 판매 가격 2052만원부터

한국지엠 쉐보레가 신형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트랙스 크로스오버로 내수 시장 공략에 드라이브를 건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예산을 뛰어넘는 가격과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하는 등 한국지엠의 침체된 내수시장 판매량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경쟁 모델인 현대차 코나와 기아 셀토스 등은 물론 경쟁 SUV인 현대차 캐스퍼와 가격 경쟁에서도 부족함이 없다.

한국지엠 쉐보레는 22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킨텍스에서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공개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제너럴 모터스(GM)의 글로벌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쉐보레의 엔트리 모델이다.

로베르토 럼펠 한국지엠 사장은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국내 출시로 GM의 새로운 타깃 세그먼트인 크로스오버 시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전세계는 물론 한국 시장에서 올해 가장 기대받고 있는 모델 중 하나다”고 말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파워트레인인 GM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E-Turbo Prime’ 엔진이 탑재됐다. 높은 효율과 친환경성을 만족시킨다. 말리부와 트레

일블레이저에 적용돼 뛰어난 파워와 연비를 입증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에는 보다 컴팩트한 사이즈의 신형 1.2리터 E-Turbo Prime 엔진이 적용됐다. LS-LT·ACTIV·RS 등 총 4가지 트림으로 국내 출시되며 최고출력 139마력, 최대토크 22.4kg·m로 복합연료비는 L당 12.7km다.

안전·보조 시스템도 눈길을 끈다. 특히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델 중 최초로 오토 홀드 기능이 적용돼 차량 정지 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제어, 운전자의 주행을 돕는다. 6개의 에어백과 전방충돌 경고 시스템, 저속 자동 긴급 제도시스템,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 시스템 등도 기본 탑재했다.

전장은 4540mm, 전폭 1825mm, 전고 1560mm다. 휠베이스는 2700mm로 쉐보레 모델 중 짧은 리어 오버행(뒷바퀴 축을 기준으로 범퍼 끝까지의 거리)을 통해 넓고 쾌적한 2열 레그룸을 구현했다.

외장 디자인은 역동성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뒀다. 크로스오버를 상징하는 알파벳 ‘X’ 형상을 디자인 전반에 디테일을 살리는 요소로 활용하고, 넓은 휠베이스와 낮게 떨어지는 루프라인 등을 통해 스포티함을 표현했다.

가격(개별소비세 인하 기준)은 ▲LS 2052만원 ▲LT 2366만원 ▲ACTIV 2681만원 ▲RS 2739만원이다. LS 트림은 캐스퍼 풀옵션(2057만원)보다 5만원 저렴하다. /양성운 기자

롯데케미칼, 인니 석화단지 건설자금 3.1조 조달 완료

국책금융기관들 적극적 지원 통해 글로벌 금융 12곳서 장기차입 계약

글로벌 금융 기관 12곳으로부터 24억달러(3조1000억원)를 12년간 장기차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케미칼의 인도네시아 자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현지 석유화학단지 건설에 외부자금 조달을 완료했다.

총 투자금액 약 39억달러(약 5조1000억원)가 투자되는 인도네시아 LINE(L. OTTE Indonesia New Ethylene) 프로젝트는 연간 100만톤의 에틸렌과 52만톤의 프로필렌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초대형 석화단지 조성 프로젝트다. 2025년 기계적 준공 및 상업생산이 목

표다.

롯데케미칼 측은 “국책금융기관들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석유화학제품 순수입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의 롯데케미칼이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또 인접한 롯데케미칼타이탄 자회사(PT LOTTE Chemical Titan Nusantara)의 연산 45만톤 규모 폴리 에틸렌 생산공장과 시너지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정운 기자

정통 오프로드 되살린 그레나디어, 아시아 최초 국내 출시

이네오스 제작·차봇모터스 수입
지향점, 디자인·성능·내구성 3가지
BMW 엔진에 마그나 플랫폼 활용
공간 효율↑ 오버행↓ 차체 강성↑
서울 성수동 전시장도 완성단계

“내구성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다. 검증된 부품을 사용했고, 쉽게 교체할 수도 있다” 차봇모터스 정진구 대표는 자신있게 말했다.

용감한 두 회사가 만났다. 이네오스가 처음으로 만든 자동차 그레나디어를 차봇모터스가 첫 수입차로 선택했다. 희미해지는 ‘4X4’ 원칙을 충실하게 따른 자동차를 완전히 혁신적인 방법으로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이네오스오토모티브와 차봇모터스는 22일 서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그레나디어를 아시아 최초로 공개했다.

그레나디어는 오프로드 자동차 본연의 성능에 충실하지는 않겠지만 만든 모델이다. 이네오스그룹 짐레트클리프 회장이 2017년 처음 아이디어를 생각한 펄 이름에서 따왔다.



정진구 차봇모터스 대표이사(왼쪽)와 저스틴 호크바 이네오스 오토모티브 아태지역 총괄사장이 그레나디어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향점은 단 3가지다. 오프로드 디자인과 그에 걸맞는 성능, 그리고 내구성이다. 영국 오프로더를 대표하는 디펜더와 똑 닮은 디자인 때문에 법적인 분쟁까지 겪을 정도로 전통적인 외관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레나디어는 성능과 내구성을 위해 검증된 자동차 기업들과 과감한 협업을 진행했다. BMW 엔진에 마그나 플랫폼, ZF 변속기 등을 활용했다. 사다리꼴 프레임 새시와 3개의 록킹 디퍼렌

셜, 솔리드 빔 액슬 등 동급 최고 오프로드 기능을 갖췄다. 생산도 메르세데스-벤츠에서 인수한 독일 함박크 공장에서 한다. 연간 3만대를 목표로 한다.

단순히 좋은 부품만 가져다 쓴 것은 아니다. 이네오스의 엔지니어링 기술을 결합해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한 디자인도 완성했다. 박스형 외관으로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새시 모서리에 바퀴를 배치해 오버행 최소화, 알루미늄 프레임 등 차체 강성도 높였다.

쉽게 부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 오프로더 특성상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도 쉽도록 했다. 오프로더를 위한 액세서리 활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실내 인테리어는 실용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전자 제어를 최소화하고 제어 버튼 대부분을 물리적으로 만들었다. 아날로그식 센트럴 컨트럴 시스템에 항공기 스타일 오버헤드 컨트롤 패널. 직관적이면서도 미래지향성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이네오스는 내구성에 특히 자신감을 드러냈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내구성에 주안점을 뒀으며, 출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도 테스트를 위해서라는 것. 실제로 이네오스는 그레나디어를 오랜 기간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상용화했다.

사후 서비스를 위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전국 서비스를 위해 차봇모터스와 다른 기업들도 협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일단 성수에 들어서는 전시장도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현재 글로벌 주문량은 1만5000대라

는 설명이다. 대중 모델이 아니긴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되면 판매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미래 계획도 소개했다. 일단 그레나디어에 이어 다양한 오프로더 라인업을 확대한다는 목표이다. 올해 말에는 궁극적인 파워트레인으로 평가하는 수소 전지 모델도 소개할 수 있을 것으로 약속했다.

정진구 차봇모터스 대표이사는 “국내 아웃도어 및 레저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통 오프로드 차량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다. 반면 실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모델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그레나디어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라며, “국내 공식 수입원으로서 차봇모터스는 그레나디어의 완벽한 사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 성수동에 건설 중인 전시장에서도 곧 그레나디어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그레나디어는 31일 경기도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도 소개된다. 하반기 정식 판매를 시작할 예정, 아직 출고가는 미정이다.

/김재용기자 juk@metroseoul.co.kr

‘한빛-TLV’ 지원 코오롱, 우주산업 첫 결실

소형 발사체 성공적 발사로
부품 공급, 108억 투자 성과

코오롱그룹이 우주산업 투자성과를 거뒀다.

코오롱은 21일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한 ‘한빛-TLV’에 참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코오롱테크컴퍼지가 주요 부품 공급사로, 코오롱글로벌이 전략적 투자자로, 코오롱인베스트먼트가 재무적 투자자다.

코오롱은 시험 발사체에 초경량과 고내열성 복합재발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한 주요 부품을 공급했다. 우주제도에 정상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력을 공급하는 추진시스템 핵심 부품이 대표적이다. 복합재 연소관 챔버와 복합재 노즐 조립체 등, 발사체 상부에 탑재체를 보호하는 노즈콘 페어링 역시 코오롱테크컴퍼지트 작품이다.

코오롱은 발사체의 부품 공급 뿐 아

니라 이노스페이스에 대한 투자도 함께 진행했다. 투자회사인 코오롱인베스트먼트는 2019년에 10억 원의 첫 투자를 시작으로 다음해 10억 원을 추가로 투자했다.

2021년에는 모빌리티 소재·부품 전문계열사인 코오롱글로벌텍이 60억 원을, 코오롱인베스트먼트가 추가로 28억 원을 투자하면서 코오롱그룹 계열사가 이노스페이스에 투자한 총금액은 108억 원으로 늘었다.

이는 이노스페이스 전체 지분 중 17.7%(23년 3월 현재 기준)로 외부 투자자들 중 최대 지분이다.

코오롱은 이번 소형발사체의 성공적인 발사를 발판 삼아 본격적으로 민간 우주산업에서의 영역을 확장한다. 위성, 관제, 통신 등 국내 우주개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검토하며 사업분야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재용기자



21일 발사에 성공한 국내 최초의 민간 시험발사체인 ‘한빛-TLV’가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SKT, 5G 오픈랜 인빌딩 실증망 구축

첫 실증 사례로 실내외 구성 완성

SK텔레콤은 5G 오픈랜 인빌딩 실증망 구축에 나선다. 국내 중견 기업 에치에프알과 함께 오픈랜 장비 전력 소모 등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자사 분당 사옥 내에 국내 중소기업과 오픈랜 기술 협력을 위한 5G오픈랜 인빌딩(실내) 실증망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연동 품질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SKT가 구축한 오픈랜 인빌딩 실증망에서 국내 중소기업들과 협력해 오픈랜 장비의 성능을 실내 사무공간에서 시험했고, 실제 서비스를 연동해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SKT는 인빌딩 실증망의 첫 실증 사례로, 국내 중견 기업인 에치에프알과 함께 클라우드 기반의 5G 오픈랜 기지국을 설치하고, 안정적인 5G 인빌딩 서비스 품질과 성능을 확인했다.

SKT는 이번 실증에서 전송속도, 지

연시간 등 네트워크 성능 측정은 물론, 실시간 서비스(웨어러블 360° CCTV)를 시연하며 서비스 품질 관점에서도 실증을 진행했다.

또 SKT가 이번에 실증한 5G 오픈랜 기지국은 기존 오픈랜 장비보다 전력소모를 줄이고 기지국 용량을 개선했으며, 장비 크기도 기존 중대형 서버에서 실제 기지국 수준으로 소형화했다.

이로써 SKT는 기존의 실외 오픈랜 필드 실증망에 이어 이번에 인빌딩 실증망을 구축함으로써 실내외 실증망 구성을 완성했다.

SKT는 올해 초 열린 MWC 2023에서 관련 내용을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호평 받기도 했다.

SKT는 오픈랜에 대한 활발한 실증 활동을 통해 다가 올 오픈랜 시대를 준비함과 동시에 국내 중소 제조사들과 함께 협력을 지속함으로써 국내 오픈랜 생태계를 키워 나갈 계획이다.

/채윤정 기자 echo@

카카오모빌리티, 英 ‘스플리트’ 품고 첫 해외 진출 도약

전 세계 모빌리티 서비스 통합 구축
우버·그랩 등 주요 글로벌 고객 보유

카카오모빌리티가 영국 모빌리티 중개 플랫폼 ‘스플리트(Splyt)’를 인수하고 본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첫 해외 기업 인수 사례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인수를 통해 해외 현지 직접 진출을 가속화할 발판을 확보하게 됐다.

2015년 영국에서 설립된 스플리트는

글로벌 슈퍼앱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연결을 통한 글로벌 API 표준화를 제공해, 각 앱 내 공급자들과 이용자 수를 연결해 주는 독보적인 글로벌 중개 플랫폼이다. 파편화된 전 세계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합해 평소에 자국에서 쓰던 앱 하나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손쉬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사업모델을 구축해 왔다.

현재는 ▲라이드헤일링(차량 호출) ▲마이크로 모빌리티 ▲대중교통 등 온디맨드 서비스 전반에서 솔루션을 제공

하고 있다.

스플리트는 이러한 독창적인 사업모델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우버(Uber), 그랩(Grab), 카림(Careem), 캐비파이(Cabify), 트립닷컴(Trip.com), 부킹홀딩스(Booking Holdings)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 대다수를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슈퍼앱들과의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아시아·북미·중동·유럽 대륙 내 150여 개 국가에서 20억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연결하고 있다.

/채윤정 기자

두산, 우즈벡 LNG발전 시장 첫 수주

카자흐스탄 이어 약 600억원 규모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중앙아시아 천연가스(LNG)발전 시장에서 연이은 수주에 성공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중국의 EPC인 하얼빈일렉트릭(HEI)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아 2단계 천연가스발전소’ 기자재 공급 계약 착수지시서(NTP)를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계약금액은 약 600억원 규모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첫 수주다. 지난 15일 카자흐스

탄에서 1조 1500억원 규모의 발전소 공사 계약 이후 일주일 만이다.

이 발전소는 1600MW급 규모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남쪽으로 150km 떨어진 시르다리아 주에 2026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건설된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이번 계약으로 500MW급 스팀터빈과 발전기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에 따르면 현재 15.8GW인 발전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29.3GW 규모로 증설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압도적 배후수요 쏟아지는 유동인구를 선점하라!

23년 2월
입주예정

대형병원이 선택한 바로 그 자리!



※본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및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월지구 골든에비뉴 PREMIUM 5	더블 역세권 망포역, 서천역 (예정)	동탄도시철도 101역 (예정)	선임대 3~8층 대형병원 입점 확정!	압도적 위치 사거리 코너 맨앞!	압도적 배후수요! 반경1Km내 22,566세대
--------------------------------	-----------------------------------	-------------------------------	-----------------------------------	--------------------------------	--



병·의원
임대문의

031) 293-0700

시행수탁사: 우리자산신탁 (주)
시공사: (주)한창종합건설
시행위탁사: (주)골든에비뉴

중도금 규제 완화... 분양시장 봄 오나

“입지·분양가 꼼꼼히 따져 내집 장만해요”

지난 20일부터 분양가·인당 대출 한도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졌다. 분양가의 60%까지 대출받아 중도금을 낼 수 있는 것. 작년 11월 중도금 대출 보증의 분양가 상한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아예 상한을 없앴다. 또 현재 인당 5억원인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사라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HUG는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없앴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14억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개인이 최대 60%까지인 8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도금 대출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분양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대출금리다. 집값 하락세와 금리 인상이 멈춰야 수요가 살아날 전망이다. 가운데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청약시장도 희비가 예상된다.

/이규성 기자 peace@metrosool.co.kr



/유투이미지

‘채광 극대화’ 회기·외대앞역 더블역세권

서울 휘경자이 디센시아
GS건설

GS건설이 이달 서울 이문·휘경뉴타운에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 ‘휘경자이 디센시아’를 공급한다.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일대 휘경3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총 1806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회기역, 외대앞역 더블역세권의 교통인프라를 자랑하는 단지다.

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 14개동 1806가구 중 39~84㎡ 70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 분양가구수는 ▲39㎡ 19가구 ▲59㎡ 607가구 ▲84㎡ 74가구로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 선보인다. 회기역(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과 외대앞역(1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다. 또한 망우로, 한천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도 접근이 가까워 서울 곳곳으로 이동하기 쉽다.

V자형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돼 채광을 고려했다. 전용면적 59㎡ 타입 일부 세대에는 4베이 관상형 구조에 안방 드레스룸 등을 제공한다. 여기에 단지 내 조성되는 입주인 커뮤니티센터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GX룸, 작은 도서관 등이 들어선다.



인근 청량리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상봉역 인근에 코스트코 등이 위치해 있다. 또한 고려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 주요 대학이 주변에 자리한 것도 특징이다.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한 수혜 단지다. 1순위 기준 서울, 경기, 인천 거주 만 19세 이상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 가능하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서울 신축 브랜드 대단지에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여전히 높고, 이문·휘경 뉴타운에서도 우수한 입지에 자리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이캘러리에 마련되며, 건본주택 오픈 전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23(중랑교 교차로 인근)에서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1661-0703)

검단양촌 IC ‘사통팔달’... 검단·청라 생활권

인천 왕길역 금호어울림 에듀그린
금호건설

금호건설은 이달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에 공급하는 ‘왕길역 금호어울림 에듀그린’ 59·84㎡, 243가구를 공급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A 38가구 ▲59㎡B 19가구 ▲59㎡C 38가구 ▲59㎡D 39가구 ▲84㎡A 73가구 ▲84㎡B 36가구 등이다.

중도금 무이자(60%) 혜택이 제공되며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매제한은 6개월이다. 또한 청약 당첨이 되더라도 청약 당첨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되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왕길역 금호어울림 에듀그린’은 수요자 선호도 높은 59·84㎡ 중소형으로 공급된다. 전 세대 남향위주의 단지 배치와 4베이(일부세대 제외) 설계로 채광 및 일조권을 극대화했다. 단지내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편의시설도 조성된다.

인천지하철 2호선 왕길역을 도보로 10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다. 검단양촌IC를 따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앞 당봉초가 위치한 초품아 아파트로 오류중(가칭)이 인근



에 2026년 개교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단지 옆 검단 16호공원(예정)으로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류택지지구내 중심상업시설이 단지 남쪽에 위치해 있다. 동쪽으로는 검단신도시, 남쪽으로는 청라국제도시가 인접해 더블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도 인근에 위치한다.

인근 산업단지 등 배후수요 또한 풍부하다. 학운·양촌·대포 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와의 접근성도 좋다. 단지 인근 왕길3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검단 3·5도시기개발계획이 예정돼 있어 신 주거타운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건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에 마련된다.

내년 GTX-A 완공... 생활 인프라 ‘한가득’

파주 운정자이 시그니처
GS건설

GS건설은 이달 경기도 파주 운정3지구 A19블록에 들어서는 ‘운정자이 시그니처’ 74~134㎡, 988가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74㎡A 102가구 ▲74㎡B 126가구 ▲84㎡A 40가구 ▲84㎡B 135가구 ▲84㎡C 79가구 ▲84㎡D 6가구 ▲84㎡T 2가구 ▲96㎡A 150가구 ▲96㎡B 221가구 ▲96㎡C 77가구 ▲99㎡A 42가구 ▲99㎡B 3가구 ▲134㎡A 3가구 ▲134㎡B 1가구 ▲134㎡C 1가구다.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GTX-A 운정역이 단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며, GTX-A노선 운정역~서울역 구간은 현재 공사 중으로 오는 2024년 하반기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주변으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파주~김포 구간 2025년 개통 예정)가 공사 중에 있고, 서울-문산고속도로, 자유로, 제2자유로 등의 진입도 용이하다.

단지 인근에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다수 위치해 있으며, 영화관, 교하도서관 등의 생활문화 편의시설도 가깝게 자리해 우수한 주거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주변에는 운정호수공원, 산내공원, 한솔공원, 양지말공원 등 풍부한 녹지환경도 갖춰져 있다.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조경면적을 전체 부지의 절반에 가까운 약 45%로 확대해 쾌적한 환경에서 자연친화적 생활이 가능하다. 이곳에는 자이(Xi)만의 시그니처 조경공간인 ‘엘리시안가든’, 아이들을 위한 테마형 어린이놀이터 ‘자이펀그라운드’ 등을 비롯해 ‘운정마당’, ‘운정작은숲’ 등 다양한 조경 시설을 도입한다. 자이(Xi)의 특별한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도 들어선다. 스크린골프 시설을 갖춘 골프연습장을 비롯해 피트니스, GX룸, 다목적체육관, 냉·온탕과 건식사우나가 포함된 남·여 사우나 등이 마련된다.

운정자이 시그니처의 건본주택은 파주시 와동동 일원에 마련되며, 건본주택 오픈 전까지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110일대(연세프라자107호)에 홍보관을 운영한다. (1660-2230)

1554가구 대단지... 평택 서부개발 ‘중심축’

평택화양 서히스타일스 센트럴파크
서히건설

서히건설이 경기 평택 화양도시개발사업지구 일대에서 ‘평택화양 서히스타일스 센트럴파크’를 공급한다. 평택화양 서히스타일스 센트럴파크는 지하 2층~지상 최대 27층 총 22개동 59·84㎡ 1554가구의 대단지다.

평택시는 동평택권에 행정문화 도심, 서평택권에 물류관광 도시를 조성하는 ‘2035 평택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단지가 건립되는 평택화양지구는 평택 서부권 개발의 중심축으로 손꼽힌다. 지난 10월 30일 착공한 평택화양지구는 총 부지 면적이 279만1197㎡로, 고덕신도시 다음으로 택지 규모가 크다. 서울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주택지구다. 현덕면 화양리 일원 279만㎡ 부지에는 오는 2024년까지 2만여 세대(5만 4084명)가 들어서게 된다.

평택화양지구는 항만물류 배후도시로, 동북아 거점항 역할을 하게 될 평택항을 비롯해 당진항이 5km 거리다. 평택항 주변으로는 포승2일반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자리해 있다. 더불어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 현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과도 인접해 향후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서해안고속도로와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화성고속도로도 가까이 지나 접근성도 탁월하다. 오는 2024년 개통이 예정된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과도 가깝다. 흥성~당진~평택~화성으로 이어지는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신안산선과 소사원시선 환승을 통해 여의도까지 불과 40분대에 연결될 전망이다. 또한, 평택화양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혼잡을 예방하고자 단지 옆 도로확장(총 3개 노선)도 예정된 상태다.

‘평택화양 서히센트럴파크 1차’ 아파트는 평택 화양지구 8블록에 건립될 예정으로, 평택화양지구 내에서도 최고의 입지를 자랑한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과 생활 편의시설이 주변에 다양하다.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총 8개의 초·중·고 학교 시설이 계획된 상태다.

상장사 불성실 공시 행태 여전... 개미들 속만 타들어간다

올 총 38건, 지난해 대비 52%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시엔
일시적 주가 하락·상장 폐지까지

거래소, 피해 예방 컨설팅 추진
고의 위반엔 페널티 강화 필요
단기간·제도적 해결은 어려워



/유투이미지

올들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된 상장사 중 상당수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도 이어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일시적인 주가 하락에다가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공시반복, 공시변경, 공시불이행 등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는 코스피 13건, 코스닥 25건 등 총 38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25건) 대비 52% 증가한 수준이다.

이달만 해도 바이오기업 신라젠이 지

난 20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되는 등 총 8건에 달했다. 신라젠은 진행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암물질 'BAL0891'의 단일요법 및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대한 제1상 임상시험 계획(IND) 승인신청에 대한 내용을 지연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기타 화학제품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체인 메카로는 유형

자산 취득 결정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이 외에 ▲한국가본 ▲AJ네트웍스 ▲태광산업 ▲일야 등이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이 예고됐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에 벌점을 매기는데, 1회에 4~8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5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 1일간 매매가 정지된다. 2년간 3회 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자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해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다.

이들 기업이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거래장지 조치는 물론 상장 폐지까지 될 수 있어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본부는 지난 13일 대응계약과 대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각각 벌점 4점과 2점을 부과했다. 앞서 대응계약은 지난달 15일 불성실공시 법인 지

정 예고를 받았으며 대응은 지난달 17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

대응과 대응계약은 지난해 9월 22일 메디톡스와 소송 가액이 기존 11억원에서 501억원으로 높아졌는데도 제때 공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거래소는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상장법인 공시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에 이어 '2023년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체계 구축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은 최근 유가증권시장에서 늘고 있는 추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2020년 14개사, 2021년 18개사, 2022년 21개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들어서는 7개사가 지정됐다.

특히 고의로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있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들을 몰라서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기업에 귀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의성이 있는 불성실 공시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어쩔 수 없이 공시 반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처벌만 강화하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성실공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며 "제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영역으로 교육 프로그램이나 공시와 관련된 그런 안내 프로그램들을 홍보해서 코스닥 기업들의 인식 자체를 성숙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中, 韓게임 외자판호 추가발급에 활짝 웃은 게임株

'KRX 게임 K-뉴딜지수' 20.87 ↑
실적 개선 기대에 주가 상승
중국 내 흥행 여부 확실 어려워



게임주가 중국발 훈풍에 들쭉이었고 있다. 3개월만에 한국게임에 대한 외자판호 추가발급이 이뤄진 가운데 게임주 전체로 온기가 퍼지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게임 K-뉴딜지수'는 20.87(2.88%) 오른 745.39에 장을 마쳤다. 해당 지수는 크래프톤, 엔씨소프트,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등 국내 주요 게임기업 10개 종목을 담고 있다.

중국내에서 국내 게임이 외자판호를 발급받으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KRX 게임 지수는 지난달 800을 넘어섰지만, 미국 긴축 장기화 우려 속에 지난

16일에는 685선까지 급락했다. 그러나 중국 국가신문출판사에서 국내 게임 4개에 대해 외자판호를 발급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특히 KRX 게임지수는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5% 가까이 오르면서 KRX 테마 지수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판호 발급에 성공한 기업들의 주가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판호를 발급 받은 '일곱개의 대죄(사신)'의 경우 넷마블에서 로열티를 지불받고 있다.

넷마블은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틀간 10% 이상 올라 6만5000원선을 넘어섰다. '쿠키런:킹덤'을 제작한 데브시스터즈는 이날 전일 상승분을 소폭 반납했지만, 지난 20일 대비 10% 이상 오른 상황이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외자판호 발급으로 게임업계 전체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전하고 있다. 이지는 대신증권 연구원은 "아직 판호를 받지 못한 게임주를 포함해 게임주 전체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에도 국내 게임들이 판호를 발급받은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최근에는 불과 3개월만에 12개나 되는 게임이 판호를 발급받았고 주기도 짝아졌다"라며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국내 기업들에 대한

판호 발급 재개라는 구조적 변화가 중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호 발급 기업 외에도 국내 게임 섹터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재평가(리레이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총 상위 게임 종목인 ▲크래프톤 +4.91% ▲엔씨소프트 2.50% ▲카카오게임즈 3.29% ▲펄어비스 5.50% 등 전일 대비 상승한 채 장을 마쳤다.

다만 판호발급과는 별개로 한국게임의 중국 내 흥행으로 이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지는 연구원은 "중국 게임 개발사들의 개발력에 따라 중국 게임 시장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다"며 "출시 초기에 과금이 높지 않은 BM(비즈니스 모델)으로 출시할 수밖에 없어, BM 업데이트 이전까지 트래픽 유지 운영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이영석기자 ysl@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ST 프렌즈' 카카오·토스뱅크와 본격 토큰증권 구축

한국투자증권은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토스뱅크와 함께 토큰증권 협의체 '한국투자 ST 프렌즈'를 결성하고 본격적으로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한국투자 ST 프렌즈'는 한국투자증권을 주축으로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가 토큰증권을 기록할 분산원장(블록체인)의 금융기관 시범 운영 파트너로 참여한다. 또한 한국은행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분산원장 구축을 위한 기술 파트너로 합류한다.

금융당국의 토큰증권 제도화 추진에 따라 조각투자업체와 블록체인 기업을 내세운 협력체들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이번 한국투자 ST 프렌즈는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첫 사례다.

한국투자증권은 연내 발행 분산원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한국투자증권의 발행 역량과 카카오뱅크·토스뱅크의 플랫폼 역량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토큰증권 상품 공급을 추진한다. 초기 생태계 구축이 완료되면 경쟁력 있는 조각투자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해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내 1위 토큰증권 생태계로 확장해 나간다는 목표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토큰증권에 적합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발행 인프라 구축이 토큰증권 생태계 구성의 첫 걸음"이라며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안정적인 IT인프라 기술력과 카카오뱅크·토스뱅크의 플랫폼 경쟁력, 한국투자증권의 딜소싱으로 토큰증권 활성화와 양질의 상품 제공에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석기자

젼백스링크 비대위, 주주연합 구성 내실화-위임장 대결

공동보유 지분 1188만7103주 공시
팍스넷경제티브이와는 약정 해제
SI와 300억원 규모 투자유치 맞손

젼백스링크 경영정상화비대위가 공동의결권 약정을 체결한 주주연합 구성을 내실화하고, 위임장 대결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비대위는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승리할 경우 전략적 투자자(SI)로부터 300억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등 약정을 체결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비대위는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공동보유를 통한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한 지분을 소액주주 88명이 보유한 1188만7103주(14.19%)라고 공시했다. 지난 15일 89명 보유주식 1261만9011주(15.07%)에서 0.88%포인트

(p) 감소한 수치다.

이는 기존 공동의결권 대상으로 참여한 소액주주 가운데 팍스넷경제티브이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팍스넷경제티브이의 전 모변호사가 주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인물 이어서 의결권 공동 행사 약정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박강규 비대위 대표는 "순수한 소액 주주 단체인데 코스닥 기업사냥꾼이 접근했다는 쪽으로 몰아가는 등 사측이 악의적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황정일 젼백스링크 대표이사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팍스넷경제티브이를 공동의결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또 비대위는 지난 15일 한 골프웨어 업체와 300억원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오는 27일 열리는 주총에서 주주 제안 안건으로 상정한 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될 경우 제3차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회사에 3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이라며 "회사의 본질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경영정상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투자자가 증자대금으로 약속한 300억원은 비대위와 유비아이파트너스 등 주주연합체가 주주총회 안건으로 채택하고 있는 주당 300원 배당안이 통과될 경우 집행될 배당금 총액(250억원)을 능가하는 규모다. 300억원 규모의 투

자유치가 실행되면 회사가 지난해 말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CB) 141억원을 소각한다는 계획이다.

박강규 대표는 "젼백스링크는 배당 재원이 충분함에도 주당 300원을 배당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에 주총에서 이사회를 재편하고 주주 가치를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강규 대표는 "해당 사례로 주주를 방문한 사람이 남긴 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젼백스링크 본사 총무팀장이라는 대답을 들었다"며 "비대위를 사칭하면서까지 위임장을 수거하는 사측 행태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젼백스링크 관계자는 "회사 측이 비대위를 사칭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무고,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

부동산 침체 ‘직격탄’ 맞은 가구업계, 적자 성적표 현실화

한샘, 증권시장 상장 후 첫 적자
현대리바트, 영업이익 279억 손실
에이스침대, 전년대비 15% 줄어
퍼시스, 사무용 가구 등 선방해 ↑



증권시장에 상장한 가구회사 대부분이 지난해 극심한 한파를 결국 피해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방산업 침체와 수요 위축 등으로 보릿고개가 불가피한 올해도 어떻게 넘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집콕’이 대세였던 코로나 팬데믹 기간 가구·리모델링의 폭발적 증가로 반짝 특수를 노린 이후 한정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숙제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22일 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오는 24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한샘은 핵심사업분야인 리하우스, 홈퍼니싱에서 고전하며 2조원의 매

출과 -217억원의 영업이익 손실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도 -713억원으로 적자였다.

사업부문별로는 홈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리하우스가 5326억원의 매출과 -71억원의 영업손실, 홈퍼니싱은 5466억원의 매출과 -224억원의 영업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홈퍼니싱은 집을 뜻하는 홈(home)과 ‘가구를 꾸민다’는 퍼니싱(furnishing)의 합성어로 가구와

다양한 소품으로 집을 꾸민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한샘의 영업손실은 2002년 증권시장 상장 후 처음이다.

업계에선 1위 기업의 ‘적자 성적표’를 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샘은 현재 사모펀드(PEF)인 IMMPE가 대주주다.

업계에 따르면 리모델링 시장은 2021년 18조원에서 2026년엔 25조원, 홈퍼니싱 시장은 2020년 18조원에서 2026년엔 29조원으로 각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는 29일 주총을 앞두고 있는 현대리바트는 지난해 매출액이 1조4957억원으로 전년(1조4066억원)에 비해 선방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279억원으로 손실을 기록했다. 직전년도엔 202억원 흑자였다. 지난해 당기순이익도 -50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리바트는 다가올 주총에서 유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 신규 사업을 위해 ‘세탁서비스 및 세탁물공

급업’을 정관에 추가한다.

현대리바트는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인 현대그린푸드가 대주주다.

에이스침대는 지난해 매출이 3462억원으로 전년 수준(3464억원)을 유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653억원으로 직전년도의 768억원에 비해 15% 가량 줄었다.

에이스침대는 23일 충북 음성공장에서 주총을 열고 상무를 맡고 있는 안승만 사내이사와 김성우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퍼시스는 지난해 3813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도(3265억원)보다 크게 성장했다.

영업이익도 327억원으로 역시 전년도 287억원에 비해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

퍼시스가 영위하는 사무용 가구의 경우 ‘엔데믹’이 다가오면서 재택근무가 끝나고 창업붐이 꾸준히 이어지는 등 가정용 가구와 달리 호황을 누리면서다.

퍼시스는 코아스, 현대리바트 사무가구 부문과 경쟁 관계다. 3개사만

놓고보면 관련 시장 점유율은 퍼시스가 60% 가량으로 절반 이상이고, 현대리바트와 코아스가 약 20%씩이다. 퍼시스는 오는 24일 주총을 앞두고 있다.

사무용 가구 전문인 코아스는 지난해 매출이 979억원으로 전년도의 1108억원에 비해 주춤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7억원으로 2021년의 적자폭(-47억원)보다 줄었다. 코아스는 2020년에도 -21억원의 영업이익 손실을 기록했다.

1966년 창업한 한국가구는 지난해 19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도보다 4.6% 성장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12억원으로 직전년도의 19억원보다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과 엔데믹을 겪으면서 가구회사들이 업종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지만 올해엔 계속되는 주택시장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더욱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빠르게 회복된 하늘길에 여행상품 ‘붐물’

지난달 국내선포항여객 회복률 72%
롯데관광개발, 기항지 투어 재개
LF몰, ‘에어프리미아’ 항공권 할인
인터파크, 중국 인기 패키지 판매



2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여객 회복률이 평상시의 72%에 이를 정도로 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다양한 여행 상품도 쏟아지고 있다.

22일 <메트로 경제> 취재 결과, 주요 여행 플랫폼들이 신규 상품을 발굴하거나 각종 프로모션을 하면서 이처럼 늘어나는 여행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선 여객 수는 455만7766명으로 3개월 연속 400만 명을 넘겼다. 코로나19 확산 첫 해인 2019년 2월(743만3725명)과 비교하면 61%대 수준이다. 국내선을 포함하면 전체 여객 회복률은 72% 수준이다.

빠른 속도로 여행 수요가 늘면서 온라인 해외 여행 플랫폼의 결제 추정금액은 코로나19 발생 전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킹홀딩스, 에어비엔비, 트립닷컴, 익스피디아, 마이리얼트립, 케이케이데이 등의 결제 추정금액이 6772억 원으로 나타났다.

롯데관광개발은 3년 3개월만에 지난 19일 기항지 투어를 재개했다. 이날 10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는 일본 요코하마를 모항으로 오미타, 가고시마를 거쳐 서귀포 강정항 크루즈전용부두로 입항했다. 마지막 기항지 투어는 2019년 12월이었다.

롯데관광개발 측은 “이번 입항을 포함해 올해 프린세스 크루즈사와 총 25번(제주 14회, 부산 11회)의 기항지 투어 단독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향후에는 투어 코스에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를 포함시켜 롯데관광개발이 보유

한 카지노, 호텔, 여행 등 사업부 간 시너지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롯데관광개발은 3년 8개월 만에 크루즈 사업 재개도 선언했다. 이 회사는 오는 6월 출항하는 코순타 크루즈 전세선 모객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2600명 이상 모객했다.

LF도 31일까지 자사 LF몰을 통해 중장거리 전문 하이브리드(HSC) 항공사 ‘에어프리미아’ 항공권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하며, LA, 도쿄, 호치민 노선별 여행지에 따라 최대 23년 10월까지 출발하는 항공권을 마련했다. 지난 달 에어프리미아와 처음 진행한 LA, 싱가포르, 도쿄, 호치민 항공권 할인 특가 행사 때는 판매 개시와 동시에 전 노선이 완판됐다.

LF몰 관계자는 “앞서 해외여행 수요 회복과 국제선 확장 움직임에 따라 빠르게 마련한 에어프리미아와의 협업 행사가 고객들의 입소문을 타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며 향후 다양한 항공사와의 협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외국인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을 재개하면서 중국 여행 상품도 쏟아지고 있다.

인터파크는 21일 베이징, 상하이, 장

가계, 계림, 황산, 청도, 텐진 등 중국 인기 여행지의 패키지 상품 판매를 재개했다. 국적 항공사 좌석, VIP 리무진 버스, 최상급 호텔, 전문 가이드 동반, 미식, 자유일정 등과 결합해 실속 있게 꾸렸다. 인터파크는 향후 단체여행까지 가능해지면 중국 여행 기획전과 프로모션을 더욱 공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염순찬 인터파크 투어패키지사업그룹장은 “여행업 회복의 마지막 퍼즐인 중국 여행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면서 “앞으로도 고객 안전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중국 여행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노랑풍선과 교원투어도 비자 발급 재개와 동시에 중국 패키지 관광 상품 판매에 들어갔다.

노랑풍선은 15일 아시아나 항공과 장가계 패키지 상품을 출시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중장년층들이 가장 선호해왔던 장가계, 백두산을 비롯해 가족 여행지로 각광을 받아온 북경, 상해, 청도 등의 관광상품에 대한 재정비를 완료했다”며 “팬데믹 이후 변화하고 있는 여행트렌드를 반영해 뷰포인트, 맛집, 야경, 테마파크 등 MZ세대에 초점을 맞춘 테마형 신규 상품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서현 기자 seoh@

삼성전자, 수자원 관리 국제 인증 ‘플래티넘’

英카본트러스트·국제 인증 2중 획득

삼성전자가 깨끗한 물 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화성캠퍼스가 국제수자원관리동맹(AWS)에서 최고 등급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AWS는 UN국제기구 UNGC와 CD P 등 국제 단체가 설립에 동참한 물 관리 인증 기관이다. ▲안정적인 물 관리 ▲수질오염물질 관리 ▲수질 위생 ▲유역 내 수생태계 영향 ▲거버넌스 구축 등 총 100개 항목 평가 결과로 기업이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플래티넘은 3단계 중 최고 등급이다. 삼성전자는 2020년 영국 카본트러스트 물 사용량 저감 인증에 이어 국제 인증 2종을 모두 획득했다. 추후 국내외 반도체 사업장으로 인증을 추가 취득할 계획이다.

AWS 에이드ريان 심 CEO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플래티넘 등급을 취득한 사례”라며 “삼



삼성전자는 화성캠퍼스가 국제수자원관리동맹(AWS)에서 최고 등급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은 수자원 관리 체계가 매우 우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인 수자원 관리를 해 나가는 데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DS부문 EHS센터장 송두근 부사장은 “이번 AWS 인증은 이해관계자와 소통과 협력 등 회사의 지속적인 수자원 관리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부·지역사회·관련업계 등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수자원 관리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용 기자 juk@

교원그룹-대상그룹 스타트업 육성 맞손

‘딥체인지 스타트업 프라이즈’ 협약

교원그룹이 대상그룹과 손잡고 스타트업 추가 육성에 나선다.

22일 교원에 따르면 대상과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딥체인지 스타트업 프라이즈’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딥체인지 스타트업 프라이즈’는 2019년부터 교원그룹이 운영해 온 투자 연계형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에듀테크, 라이프스타일, ICT 등 매년 다양한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을 선발해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사는 상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타트업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활동에 나선다. 특히 ▲푸드테크 및 바이오 분야 혁신기술 스타트업 발굴 ▲스타트업의 기술검증(PoC) 및 상업화를 위한 협업 ▲직·간접 투자 연계 등 체계화된 인큐베이팅 지원 ▲스타트업 판로 확대 및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 등 적극적인 협력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KYO
WON 교원투어



떠나고 싶은 마음에게
쉽게 답을 주는 여행사

여행이지

교원이 만든 새로운 여행사 여행이지와 함께
당신이 원하던 여행을 쉽게 떠나 보세요



WEB AWARD
22 INNOVATOR

웹어워드코리아 2022
문화/레포트 부문 대상 수상

수상대상 (주)교원투어 여행이지 홈페이지 X 파인너츠



www.kyowontour.com

박형준 “지역주도 인재양성 공감... 지방대 매개 역할해야”

(부산시장)

교육부 라이즈 사업 긍정적 평가 “중앙 바라보기식 정책 아닌 수평적 협력체계 강화 중요”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1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교육부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 인력 양성이 중요하고 지방대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21일 부산시청에서 교육부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부산 간담회에서 교육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로 침체된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물음에 이와 같이 답했다.

대학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부가 갖고 있던 대학의 재정 집행 권한을 광역시도로 이양하는 내용의 라이즈 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화 산업을 위한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 등 중앙 부처가 맡아 오던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 2조원 규모를 2025년부터 광역시도에 설치하는 전담 기관이 맡아 관

리하고, 예산을 어떻게 쓸 지, 어떤 대학에 투입할지에 대한 계획도 지자체가 대학과 협력해 구상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중앙 정부 주도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과 지방대를 살리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도 이런 방향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중앙 집중적 정책 통

해서 시책을 따라가게 하는 사업은 중앙정부 바라보기식 정책”이라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내 수평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고 의사결정 권한을 지역 협력체계 주는 게 맞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원광해 부산테크노파크 지산학협력단장에 따르면, 부산 지역의 지역 내총생산(GRDP) 비중은 전국 대비 4.7% 수준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최

근 5년간 법인 순유출(191개), 지역 대학·대학원 졸업자 감소(4000여명)도 이어졌고 졸업생의 42.5%가 서울, 수도권 등 지역 바깥으로 취업해 유출되는 상황이다.

지산학협력센터를 운영하는 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은 “지역 기업이 강소형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금, 연구개발도 아니고 인재”라며 “지역사회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공급받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라이즈는 그런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지역 대학들도 공감을 나타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덕희 한국해양대 총장은 “지난해 17%였던 편입생 비율이 올해 30%로 늘었다”며 “취업이 잘 되니 은퇴하더라도 전문직 지속할 수 있는 게 특성과 분야라는 점을 학생들도 알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대학은 특성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북도

‘전통시장 봄봄봄 페스티벌’ 개최

경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전통시장 온라인 마케팅사업의 하나로 네이버와 함께 ‘경북 전통시장 봄봄봄(가봄, 사봄, 와봄)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이 페스티벌은 다음달 19일까지 3주간 네이버에 개설된 ‘경상북도 전통시장 특별관’에서 진행되며 입점된 30여개 점포 상품을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아울러 네이버 쇼핑의 ‘기획전’ 또는 ‘동네시장 장보기’ 메뉴로 도내 전통시장 상품을 특가로 구매할 수 있다.

이 페스티벌은 동네시장 장보기(원역 1일 배송)와 전국배송(일반 택배)이 가능한 도내 전통시장 30여개 점포를 선정해 상품할인, 장바구니 할인 등 행사와 함께 개별 점포 홍보도 병행한다.

/경북=이상호 기자

영덕군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영덕군은 관내 중소기업의 맞춤형 역량 강화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영덕군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으로, 4개 기업에 개별 최대 145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내용은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디자인 개발, 홍보물 제작, 제품생산, 마케팅 지원, 인력양성지원, 컨설팅 지원, ESG 경영 등의 매뉴얼사업 7개 분야 25개 지원 사업이며, 해당 기업은 필요에 따라 분야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영덕(경북)=김종철 기자 kimjongseol@

양산시 폐수처리시설 국제숙련도 ‘우수’

양산시시설관리공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최근 미국 환경자원학회가 주관하는 국제숙련도 평가에 참가해 수질분야 우수 분석기관으로 선정됐다.

국제숙련도평가는 수질분석 능력 향상과 측정분석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인된 국제숙련도 시험기관에 의뢰해 능력을 검증받는 국제 공인 프로그램으로 매년 전 세계분석기관이 참여하며, 공단 환경시설팀은 COD, BOD, TOC 등 모두 6개 항목에서 ‘만족’을 받으며 수질분야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양산(경남)=이도식 기자

“구룡포 대게축제 놀러오세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포항시 4년만에 축제 개최 할인 이벤트, 시식행사 마련

지난 4년간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했던 ‘구룡포 대게축제’가 다시 열린다.

포항시는 대게 생산의 중심지, 포항 구룡포에서 대게 축제 ‘2023 구룡포 어서오시게’를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

구룡포 과메기 문화거리 아라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구룡포 대게의 브랜드 명성을 전국에 알리고 관광객에게 품질 좋은 대게와 붉은대게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할인 이벤트와 무료로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시식 행사를 마련했다.

25일 오후 5시부터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대게 축제 거리퍼레이드’와 구룡포 설화를 바탕으로 만든 주제공연 ‘FieryDragon:구룡의비밀’을 만나 볼 수 있으며, 아홉 마리의 용이 하



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표현한 ‘라인로켓 퍼포먼스’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스트롯 시즌1 출신 가수 정미애를 비롯한 인기 트로트 가수 박성연, 민영화 등이 출연해 개막 축하공연을 펼치며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예정이다.

구룡포 아라광장 인근에는 인기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인 일본인 가족거리와 과메기 문화관, 호미꽃 새천년기념관 등 포항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인접해 있어 행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주말 가족여행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항(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대구시 전체위 등 신속진행 방침

대구시는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첫 번째 문턱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21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구시는 특별법의 필요성과 원안 통과를 위해 국토위 여야 의원뿐만 아니라, 기재부, 국토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도 전방위적으로 협의와 설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오늘 법안소위 심사에서 기부대양여차액의 국비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발의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되는 등 국가지원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원활한 공항 건설의 활로가 확보됐다.

대구시는 앞으로 남은 국토위 전체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사진

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마지막까지 전심전력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라며, “그동안 함께 노력해 주신 여당 지도부와 국토위 위원과 지역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리며,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완도군, 30일 ‘해양 치유도시’ 비전 선포

완도군은 오는 30일 완도군 생활문화센터에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삶을 선도하는 해양치유 완도 관광’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선포식에는 국내 여행사 및 유관 기관 관계자와 인플루언서 및 유튜버 등 전국의 MZ 세대,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가, 음식점·숙박업 종사자, 완도군관광발전협회 회원 및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 해양치유산업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의 본격적인 운영과 대규모 행사·축제 개최에 앞서 관광 비전을 선포함으로써 관광 인지도 제고와 경쟁력을 강화하여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선포식을 마련하게 됐다.

선포식은 국악양상발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신유철 완도군수의 ‘완도 관광’ PT, 국내 여행사 및 유관 기관과의 해양치유 완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이 진행된다

군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이벤트를 벗어나 국내 여행사와 유관 기관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해양치유와 전북 따기 등 완도의 관광자원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 모집을 위한 상품 개발과 홍보·마케팅의 기회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전남교육청 “학교 공기청정기 신속교체 지원”

교직원노조 교체지연 지적 대응

전남 도내 일선 학교 공기청정기 교체작업이 늦어져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전라남도교육청이 신속한 교체 작업을 위한 ‘정상 지원’을 약속했다.

22일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조 전남지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해지로 재계약하게 됨에 따라 도내 유·초·중·고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지연되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

장했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재설치를 위한 계약 추진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군 교육지원청에 안내하고, 현장 설치 시 현장감사 및 검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교육청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체없이 재계약을 추진하고 공기청정기 현장 설치 시 검사·검수 강화, 학교 현장과 소통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교육지원청에 재차 안내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전남교육청

영암교육지원청 권한·예산 확대

전남도교육청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자체 개발 할 수 있도록 영암교육지원청에 교육감의 인사 권한과 예산 등을 대폭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유출로 인한 전남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형 미래교육선도지구’로 영암교육지원청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선도지구에 교육장 3년 임기보장, 충분한 예산·인력, 지역 장학사 선발 등을 지원한다.

/전남=양수영 기자

제과-바이오 투트랙 전략... 오리온 '제2의 도약' 나선다

작년 매출 22%, 영업익 25% 증가
글로벌구매·물류팀 대표직속 개편
올美·호주·日 등 주요국 입점 확대

'오리온바이오로직스' 설립·편입
암 증증질환 진단분야 사업 추진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오리온 본사 전경.

/오리온

오리온그룹이 제과사업과 바이오사업의 역량 강화를 본격화해 '제2의 도약'에 나선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오리온은 올해도 전망이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월 베트남과 중국 법인 실적이 주춤했지만 제조원가 상승 흐름이 꺾이면서 하반기부터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리온은 지난해 연결 기준 실적으로 매출액 2조8732억원, 영업이익 466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대비 22.0%, 25.1% 증가했다. 원부재료 가격 및 에너지 비용 상승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익성 중심의 경영으로 호실적을 냈다.

이러한 성과의 중심에는 이승준 오리온 대표가 있었다. 오리온그룹은 지난해 이 대표를 한국법인의 수장으로 내정했다. R&D 전문가로 불리는 이 대표는 올해 기존 사업의 경쟁력 제고 외에도 건강 지향형 제품 성장에 집중할 전망이다. 오리온은 최근 생산본부 산하의 글로벌구매와 물류팀을 대표 직속으로 조직 개편하며 효율성 강화에 나섰다.

오리온 측은 "글로벌구매와 물류팀이 구매, 물류의 전사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사가 해외사업의 구매와 물류의 헤드쿼터 역할을 맡아 수익성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원재료 구매 등을 통합적으로 실행하면 그만큼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더불어 물류 효율성까지 제고할 수 있다.

오리온의 지난해 해외지역별 매출 성장률을 보면 중국은 14.9%, 베트남 38.5%, 러시아 79.4%를 기록했다. 해외에서 다각화한 제품 포트폴리오가 그만큼 흥행을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올

해는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대형유통채널 입점을 확대하는 한편 '쫄면'을 필두로 비스킷, 젤리 등 제품군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 올해는 인도 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해 초코파이 1개 라인인을 가동한 인도에서는 이달부터 쫄면 생산을 시작, 하반기에는 파이류 제품군 라인도 증설한다.

IBK투자증권은 "오리온제과사업부는 한국 및 중국 이외 국가들의 성과가 가시화하면서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안착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관련 영역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오리온그룹은 지난해 12월 '오리온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해 자회사로 편입했고 1월에는 증자를 단행, 공격적인 인재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앞서 오리온그룹은 발병률이 높은 암 증증질환 진단분야와 결핵백신을 구체적인 사업영역으로 낙점하고 2021년 3월 중국 제약업체 산둥루강의약과 손을 잡고 합자법인 산둥루강오리온을 설립했다.

그해 5월에는 국내 암 체외진단 기업 '지노믹트리'와 대장암 체외진단용 기

술 사용에 대한 계약금, 사업진행에 따른 마일스톤, 매출 발생으로 인한 로열티 등 지급에 합의하면서 중국 대장암 진단시장 진출을 알렸다. 지노믹트리가 중국 내 임상시험과 인허가를 위한 기술 지원을 받고, 오리온이 현지생산을 담당하는 식이다.

지난해 11월에는 바이오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하이센스바이오'와 오리온바이오로직스를 설립했다. 타깃 질환은 난치성 치과질환이며 치과치료제까지 영역을 넓혔다. 치과 신약개발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구강청결제, 치약 등의 약외품과 식품 소재 영역까지 진출할 방침이다.

하이센스바이오는 2017년 세계 최초로 상아질 및 치주조직 재생 원천기술 기반이 되는 '코핀7(CPNE7) 단백질 유래 펩타이드' 개발에 성공해 한국을 포함해 중국, 미국 등 총 11개 국가에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오리온바이오로직스는 시린이 치료제 상용화를 위해 국내 임상1상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재 임상 2a상을 진행 중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쇼핑, 부산에 고객풀필먼트센터 짓는다

부산시와 상호협력 투자협약 맺어
올해 말 착공, 2025년 완공 목표

롯데쇼핑이 22일 부산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부산시와 고객풀필먼트센터(CFC) 건설에 대한 상호협력협약을 골자로 한 투자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김상현 롯데쇼핑 총괄 대표 부회장이 참석했다.

롯데쇼핑은 올해 말 부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에 영국 리테일테크 기업 오카도의 오카도 스마트 플랫폼(OSP)가 적용된 첫번째 CFC 착공에 들어간다. 2025년 완공이 목표다.

CFC 건립지역인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는 부산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글로벌 물류허브 도약을 목표로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을 통해 구축한 물류 클러스터다.

롯데쇼핑 부산 CFC는 부산지역 최초의 온라인 그로스리 전용 자동화 물류센터가 될 전망이다. 부지면적 약 4만 m² 규모로, 일 3만건 이상의 배송을 처리할 수 있어 부산뿐 아니라 창원, 김해



김상현 롯데쇼핑 총괄대표, 박형준 부산시장,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왼쪽부터)이 22일 부산광역시청에서 협약서를 들고 있다. 롯데는 1조원을 투자해 부산에 오카도 스마트 플랫폼이 적용된 고객풀필먼트센터를 짓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주변 지역 고객에게 한층 향상된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건립 후 일자리는 2000여 개 이상 창출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CFC에는 OSP의 모든 첨단 시스템이 적용된다. 데이터 및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철저한 수요예측 및 재고 관리, 효율적인 배송 및 배차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피킹과 패킹, 배송 및 배차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자동화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온라인 장보기 과정에서 겪어왔던

상품 변질, 품질, 상품 누락, 오배송, 지연 배송 등 불편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롯데쇼핑은 영국의 온라인 유통기업인 오카도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약 1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의 첫번째 부지로 부산을 선택해 주어 감사하다"며 "시에서는 다양한 맞춤형 정책으로 롯데쇼핑 CFC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오비맥주, 생산공장 일대 '하천정화' 활동

'세계 물의 날' 맞아 3곳서 실시

오비맥주가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맞아 3개 생산공장 인근에서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매년 3월 물 부족과 수질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청주, 광주, 이

천 3개 공장 인근 하천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쓰레기를 주우며 조깅하기)에 더해 'EM 흙공 던지기'도 하며 환경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전날 오전 오비맥주백재승 생산부본부장과 직원들은 청주시 서원구 김을

오 구청장, 서원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청주시 서원구 무심천에서 플로깅과 'EM 흙공 던지기'를 실시했다. EM 흙공은 황토에 유용 미생물을 섞어 만든 흙공으로, 오염된 하천의 수질 개선과 악취 제거에 효과적이다.

오비맥주 광주공장은 금일 공장 인근의 영산강에서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 이천공장 임직원들도 같은 날 공장 외곽과 인근 소하천에서 쓰레기 줍기를 펼쳤다. /신원선 기자

스타벅스, 영업시간 복귀 기념 별 추가적립

'이브닝 딜라이트' 이벤트

코로나19로 매장 영업시간을 단축 운영해온 스타벅스코리아가 영업 시간을 복귀 운영함에 따라 '이브닝 딜라이트' 이벤트를 진행한다.

스타벅스코리아는 23일부터 4월5일까지 2주간 오후 5시 이후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별 추가 적립 행사를 진행하며, 고객 혜택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등록된 스타벅스 카드로 모든 제조 음료 구매 시 영수증 당 별 3개를 추가로 적립해 제공한다.

'이브닝 딜라이트' 이벤트는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중 웰컴, 그린, 골드 레벨 회원이 본인 계정에 등록된 스타벅스 카드로 결제하면 참여 가능하며, 개인컵으로 음료 구매 시에도 에코별 적립과 개인컵 할인도 모두 가능하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2월 'Back to 99' 행사를 통해 스타벅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커피 음료인 카페 아메리카노를 1999년 가격인 2500원에 판매했으며 3월에는 '카페 라떼'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에스프레소 샷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스타벅스의 커피 정통성을 강조한 바 있다. /신원선 기자

CJ제일제당 비건음료 '얼티브' 라인업 확대

식물성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CJ제일제당이 비건 음료 '얼티브' 라인업 확대에 나선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대체유시장 규모는 2021년 6942억원으로 4년 전 대비 23% 성장했으며, 오는 2026에는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CJ제일제당은 이 같은 트렌드를 주도하기 위해 22일 식물성 대체유 브랜드 '얼티브(ALTIVE)' 신제품 5종을 출시했다고.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얼티브 오리지널 2종 ▲얼티브 바리스타 1종 ▲비건 커피 2종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춰 종류와 용량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먼저 얼티브 오리지널은 지난해 6월 첫 출시된 얼티브 플랜트유를 리뉴얼한 제품이다. 현미와 완두 단백질을 혼합해 기존 고단백·고칼슘 특성은 유지하



면서, 국내산 현미액을 더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맛을 강화했다. 또, 기존에는 1L제품만 판매했다면, 소비자 편의성을 위해 소용량인 190ml와 730ml 두 제품으로 구성했다.

얼티브 바리스타는 달지 않고 부드러운 맛과 라떼를 만들기 위해 최적화된 크리미한 질감이 특징으로, 커피나 차에 넣어 풍미를 살리는 데 활용하기 좋다. 커피 전문점에서 음료 제조에 사용하기 좋도록 가장 많이 쓰이는 730ml 용량으로 출시했다. /신원선 기자

동영상 지원·하루 면접... 제약업계 'MZ맞춤형' 채용 눈길

**영업부문 신입 3년만에 모집
지원자격 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
고객대상 단순 관계 영업직무 아닌
학술지식 등 추가적 컨설팅 핵심**

지난해 최대 실적이 이어진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상반기 채용 문을 활짝 열었다. 매출 500대 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코로나19 수혜를 입은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인재를 모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웅제약은 오는 4월 2일까지 상반기 영업부문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웅제약이 영업부

문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건 3년만의 일이다. 대웅제약은 최근 글로벌 기업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우수한 인도네시아 석박사를 채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입 사원을 채용하고 있다.

채용 절차는 서류 및 영상 전형을 시작으로 인적성 검사, 1-데이(Day) 면접, 인턴십 순으로 진행되며, 지원자격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이다.

이번 채용에서 눈여겨 볼 점은 동영상 지원자를 통해 지원하는 부분인데, SNS 상에서 표현이 자유로우며, 글보다 동영상에 친숙한 MZ 세대들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영상편집 기술보다 입사의지와 지원자의 가치관을 판단할 계획이다.

또 지원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

데이(Day) 면접을 올해도 적용했다. 짧은 면접 시간 안에 지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면접관에게 모두 보여주기 힘든 점을 개선하여, 하루 동안 다양한 형태의 면접을 통해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대웅제약의 영업 직무는 병원 등 고객 대상으로 단순한 관계영업이 아닌 학술지식 등 추가적인 컨설팅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웅제약 이창재 대표는 "이번 채용을 통해 대웅제약만의 체계적인 영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동시에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국내 근로환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 등 일동제약 그룹 회사들이 상반기 공개 채용을 진행 중이다. 지난 15일 원서 모집을 마무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 등의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동제약은 연구 개발, 생산, 글로벌 사업, CHC(킨슈머헬스케어) 등 각 부문에서 신입·경력·계약직 사원을 뽑는다. 지주회사인 일동홀딩스는 재무, 회계, 법무, ESG 경영 등의 분야에서 신입 및 경력 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감기약 '콜대원'으로 지난해 매출이 크게 늘어난 대원제약 역시 상반기 신입·경력 정기 공채를 뽑고 있다. 모집 분야는 영업, 마케팅, 연구개발(R&D), ICT지원부(정보화개발), 생산 등

이다. 원서 접수를 마무리하고, 서류 전형에 이어 인적성 검사와 1차 실무 면접, 2차 임원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원제약 DNA 채용'은 대원제약이 지난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채용 제도다. 스펙이 아닌 역량 중심의 채용을 통해 대원인의 DNA를 보유한 인재를 찾는다는 의미다.

동아ST 역시 연구, 마케팅, 생산 안전관리 등 분야에 상반기 수시채용을 진행 중이며, 동아제약은 공채 진행을 위해 분야별 채용 인원 등을 확인하고 다음달 채용 공고에 나설 예정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SK케미칼, AI활용해 치매 예방 돕는다

**인지·언어 훈련프로그램 자체개발
서울·경기·대전 등 45개 기관 추가**

SK케미칼이 SK플라즈마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치매 예방 AI 프로그램 기부를 진행한다.

SK케미칼은 지난해에 이어 전국 45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신규로 선정하고 AI기반 인지개선 프로그램 '사운드마인드'를 추가 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작년 SK바이오사이언스에 이어 올해에는 SK플라즈마와 함께 한다.

SK케미칼은 지난해에 75곳의 노인주간보호센터에 이어 올해는 45개소에 추가로 사운드마인드를 보급하여 총 120개소의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운드마인드는 소셜벤처 이드웨어가 개발한 인지 및 언어 훈련 프로그램으로, 자체 개발한 음성인식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고령층 및 경도 인지장애 등 치매 고위험군의 치매를 예방하거나 증상 지연을 돕는 앱 서비스다.



SK케미칼 구성원들이 AI기반 인지개선 프로그램 '사운드 마인드'를 시연해보고 있다.

신경과 전문의 및 대학 언어병리학과 등의 임상 전문가와 함께 개발한 기억·언어·지각·사고·주의 영역의 60여가지 두뇌 훈련 콘텐츠를 기반으로 12주마다 인지 검사를 시행하고, 인지 검사 결과에 따라 AI가 개인의 특성에 맞는 훈련을 골라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SK케미칼은 작년 이 프로그램을 보

급한 75개소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결과 사운드마인드를 12주간 이용한 치매 고위험군과 미이용한 대조군을 비교한 결과 인지능력이 12%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3년간 인지 저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LF 헤지스 '아이코닉' 반려견 의류 론칭

반팔 티셔츠와 케이블 스웨터 구성

LF는 23일 헤지스(HAZZYS)가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반려견 의류를 론칭한다고 22일 밝혔다.

헤지스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베스트 셀러로 부상한 아이코닉 시리즈를 반려견 의류 라인까지 확대한다. 아이코닉 라인은 클래식한 피케 티셔츠, 케이블 니트, 옥스포드 셔츠 등 헤지스가 20여년간 이어온 헤리티지가 담긴 핵심 아이템으로 구성된 컬렉션이다. 해당 라인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유기견 보호단체 등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번 시즌 반려견 아이코닉 라인은 피케 반팔 티셔츠와 케이블 스웨터로 구성됐다. 피케 반팔 티셔츠는 생기



헤지스는 아이코닉 라인에 반려견 의류를 추가한다. /LF

는 봄과 어울리는 그린, 옐로우, 블루 색상으로, 케이블 스웨터는 그린, 핑크, 네이비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출시되며 미디움과 라지 사이즈로 구성됐다. /김서현 기자 seoh@

JW중외제약 변비약 '베비움 시럽' 출시

JW중외제약은 신제품 '베비움 시럽'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베비움 시럽은 락툴로오즈농축액을 주성분으로 하는 일반의약품 변비약이다.

락툴로오즈농축액은 합성 이당류이지만 체내에 흡수되지 않아 혈당을 올리지 않고, 대장 내 삼투압 작용을 통해 수분을 끌어올려 배변을 유도한다. FDA 안전성을 입증 받은 성분으로 만성 변비 환자뿐만 아니라 영유아, 변비로 고통 받는 여성, 고령자 등 모든 연령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

특히 스틱 형태의 단맛이 나는 시럽 제제로 남녀노소 복용이 편리하고 휴대가 간편하다.

/이세경 기자

셀트리온 K-바이오 분야 혁신기업 육성 강화

산업 생태계 조성하는데 목적

셀트리온이 22일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하고 바이오 스타트업과 오픈이노베이션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 캠퍼스에서 진행된 행사엔 셀트리온을 비롯한 랩허브 구축기관 및 제약바이오 분야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은 산학연병이 협력해 의약바이오 분야 혁신 창업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이번 업무협약식에 대한민국의 대표 바이오 앵커기업으로 참석해 K-바이오 랩허브의 성공적인 출범과 바이오 분야 혁신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나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다짐하고, 인천 송도를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비전을 공유했다.

셀트리온은 2026년부터 운영되는 K-바이오 랩허브 방향성 부문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제공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개발 ▲우수 스타트업과 기술사업 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이날 오전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셀트리온 연구개발부문장 권기성 부사장,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셀트리온과 협력 중인 바이오 스타트업 5개사와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세경 기자



광동제약은 '비타500 제로'의 광고 모델로 르세라핌을 발탁했다고 22일 밝혔다.

광동제약 "르세라핌과 '비타500 제로' 즐겨요"

2001년 출시 누적 60억명 이상 판매 광동제약은 '비타500 제로'의 광고 모델로 르세라핌을 발탁했다고 22일 밝혔다.

비타500 제로는 기존 비타500에 함유된 비타민C 함량(500mg)과 맛은 그대로 유지하고, 당류와 칼로리를 0(ZERO)으로 설계한 제품이다. 비타500은 지난 2001년 출시돼 작년까지 누적 60억명 이상(내부 출고 데이터 기준)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착한 국민 드링크'로 자리매김했다.

광동제약은 르세라핌 특유의 활력 넘

치는 매력과 파워풀한 안무, 꾸준한 운동으로 다져진 건강미가 비타500 제로의 콘셉트와 잘 부합한다고 판단해 광고 모델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비타민 C를 가득 채운 제로'라는 제품 차별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소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르세라핌은 하이브와 산하레이블 쏘스뮤직이 함께 론칭한 걸그룹으로, 지난해 데뷔해 거침없고 당찬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세경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충주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전달식
2023. 3. 21. (화) 14:00 / 충주시청 중영담회의실

충주 행복 두끼

행복얼라이언스, 아동결식 해소 1억 '통 큰' 지원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가 멤버 기업인 SK에코플랜트와 협력하여 충주시 51명 아이들의 향후 1년간 식사 지원을 위해 1억 상당 '통 큰'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왼) 충주시 여성청소년과 김민숙 과장, 충주시 신형근 부시장, SK에코플랜트 ESG추진 이성녀 담당임원,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행복나래) 조민영 본부장 /행복얼라이언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신세계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라이프스타일브랜드 '자주(JAJU)'가 지난 21일 오후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월드비전에 지역사회 아동들을 위한 12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 전달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최운정 본부장, SI 황현미 자주 마케팅팀장 /신세계인터

한국타이어 'BMW 드라이빙 센터' 타이어 공급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독일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 BMW 그룹 코리아에서 운영하는 드라이빙 복합 문화 공간 'BMW 드라이빙 센터' 시승 차량에 자사 고성능 타이어를 독점 공급한다. 이번 계약으로 한국타이어는 9년 연속 BMW 시승차에 타이어를 공급하게 됐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BMW 드라이빙 센터가 개장한 이래 9년 연속 센터 내 트랙, 주행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모든 시승 차량에 타이어를 공급하며 글로벌 타이어 기술력과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입증했다. /양성운 기자



타이어뱅크, 'kt wiz 프로야구단' 마케팅 후원

타이어뱅크는 지난 21일 수원 kt wiz 파크에서 8년 연속 kt wiz 프로야구단과 마케팅 후원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박순풍 타이어뱅크 그룹홍보마케팅본부장(왼쪽)과 강신혁 kt sports 마케팅 센터장이 후원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타이어뱅크



홈쇼핑, 방송학회 신기술 상용화 사업 지원

홈쇼핑이 새로운 방송기술 개발 독려 및 지원을 위해 한국방송학회에 2억원을 전달했다. 홈쇼핑이 전달한 2억원은 '방송 신기술 상용화 지원사업'에 쓰였다. 홈쇼핑 이원섭 대표(왼쪽)가 지난 21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신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 시상식'에서 지원기업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홈쇼핑

현대차, '리스타일 전시' 개최... 업사이클링 트렌드 소개

차량 폐자재, 패션아이템 구성
내달 9일까지... 무료 관람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폐자재의 업사이클링을 통해 차별화된 패션 아이템을 선보인다. 현대차는 차량 폐자재를 패션 아이템으로 구성하는 '리스타일'(Re:Style)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소개하는 '현대 리스타일 전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리스타일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성이 중요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자동차와 패션의 협업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는 이날 오후 6시 오프닝 행사를 시작으로 4월9일까지 서울 성수동 AP 어게인에서 열린다. 전시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현대차는 세계적 패션 디자이너이자 아디다스 객원 디자이너로 유명한 제레미 스콧과 협업한 결과물인 2023 리스타일 컬렉션과 지난 3년간 컬렉션을 모은 아카이브 전시를 선보인다. 2023 컬렉션은 자동차



'현대 리스타일 전시'에서 공개하는 '2023 리스타일 컬렉션' 전경

에 쓰이는 다양한 재료에 영감을 받아 재치 있는 디자인을 입혀 고급 여성복을 만드는 오프 쿠튀르 드레스 컬렉션으로 구성됐다. 버려지는 원단 등 자동차 폐자재와 전동화 차량에 쓰이는 소재를 활용해 지속가능성의 의미를 보여주는 취지다. 올해 활용된 소재는 아이오닉6

에 적용된 친환경 소재인 바이오 플라스틱 스킨(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 소재가 함유된 원단)과 전동화 차량에 사용된 안전띠·후미 등·와이퍼 등이다. 아카이브 공간에는 리스타일 홍보대사이자 글로벌 모델 로렌 바서가 직접 해당 컬렉션을 착용하고 연출한 영상이 상영된다. 지원원 현대차브랜드마케팅본부장은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 출시에 맞춰 전동화 혁신 비전과 문화 콘텐츠를 접목하는 등 다방면으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며 "브랜드의 지속 가능성과 혁신성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소통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 라오스에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요청

박승희 사장, 정부 관계자 접견
이노베이션 캠퍼스 운영 등 논의

삼성전자가 라오스에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지를 부탁했다. 삼성전자는 20일 CR담당 박승희 사장이 라오스에서 살롬씨아 쾨마쉴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접견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사장은 라오스에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9월에도 삼성전자를 소개하고 유치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21일에는 팻 심말라봉 교육체육부 장관을 만나 삼성 이노베이션 캠퍼스 운영 계획을 소개하고 '삼성 이노베이션 캠퍼스'를 운영할



삼성전자 CR담당 박승희 사장(오른쪽 네번째)이 21일(현지시간) 라오스 국립대에서 열린 '삼성 이노베이션 캠퍼스'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팻 심말라봉 라오스 교육체육부 장관(왼쪽 네번째)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라오스 국립 대학교를 방문해 '삼성 이노베이션 캠퍼스'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MOA)도 체결했다. 디지털 기술 인력 양성 중요성과 기여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삼성 이노베이션 캠퍼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AI, IoT, 코딩 및 프로그래밍 등 SW 교육을 통해 능동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삼성전자의 대표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이다. /김재웅 기자 juk@

년을 대상으로 AI, IoT, 코딩 및 프로그래밍 등 SW 교육을 통해 능동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삼성전자의 대표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신보-네이버-IBK기업은행, 이커머스 소상공인 지원 맞손

경영애로 해소 등 협력체계 구축

신용증기금은 네이버파이낸셜, IBK기업은행과 함께 '이커머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이커머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과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영애로 해소 등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소상공인이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의 금융 사각지대를



지난 21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열린 '이커머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왼쪽부터)가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해소하기 위해 이커머스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작

로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신보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플랫폼에서 실시간 생성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커머스 사업자 전용 대안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출된 대안평가등급을 보증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재무 및 금융이력이 부족한 신파일러(Thin-filer)라도 이커머스 플랫폼 영업활동이 우수해 미래 성장성이 높다면 문턱을 낮춘 정책 보증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대한상의, 2기 서포터즈 출범... 부산엑스포 유치 등 활동

태국 하이텐션, 인도 언니, 미얀마 뷰티 크리에이터 등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위해 뭉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상의회관에서 '대한상의 2기 서포터즈 발대

식'을 가졌다. 서포터즈는 부산엑스포, 상의소통플랫폼 등 경제계 중점 사업을 온오프라인으로 알리기 위한 청년세대로 1기에 이어 100명의 지원자들을 선발했다. 이번 서포터즈는 지난해 1기 서포

터즈와 달리 글로벌 인플루언서를 30여명 뽑았다. 2030 엑스포 유치전이 세계박람회유치위(BIE) 국가 170여개국 투표에 의해 결정되기에 이들 국가들에게 부산을 알리기 위해서다. /최빛나 기자 vitna@

KCC글라스 'Dream홈씨씨' 사업 추진

'홈씨씨 인테리어'를 운영하는 KCC글라스가 서울 서초구와 함께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Dream홈씨씨' 사업을 새롭게 진행한다. KCC글라스는 지난 20일 서초구청에서 서초구, 방배유스센터,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Dream홈씨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Dream홈씨씨 사업은 서초구에 살고 있는 자립준비청년과 빈곤 대물림 가정 청년, 학교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자립 준비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과 정서적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에이스침대-LG 베스트샵 '웨딩페스타' 프로모션

에이스침대가 봄 웨딩 시즌을 맞아 LG전자 베스트샵과 함께하는 '웨딩페스타' 프로모션을 펼친다. 22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이번 프로모션에선 총 13명의 고객에게 ▲LG 스탠바이미 TV(1명) ▲오브제 와인셀러 미니(2명) ▲LG 톤프리(10명) 등 LG전자 베스트샵 인기 가전제품을 증정한다. 기간은 4월 28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예비부부 맞춤형 멤버십 서비스인 '에이스 웨딩멤버스'에 가입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부음

- ▲ 신현택씨 별세, 신득영·신진영(김두관 의원실 비서관)씨 부친상 = 22일 오전,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4일 오전 6시 02-2276-7671
- ▲ 이광자 씨 별세, 임채섭(한국야구위원회 경기운영 위원) 씨 부인상, 임천명·예선씨 모친상 = 22일, 순천향대학 병원장례식장 5호실, 발인 24일 오전 9시, 02-797-4444

국가 경쟁력, 기술기능인 우대에서 시작



기고
송웅범
서울지역본부장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00달러 수준이던 1953년부터 2017년 사이에 440배 증가했고, 지금은 3만2000 달러를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을수 없을 만큼 경제발전이 있어 지난 70년 동안 큰 성취를 이루며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 원동력중에서 무엇보다 큰 역할을 한 것은 산업 진흥과 기술혁신을 이룬 각 분야의 기술기능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숙련기술인들의 양성에는 역대 정부의 정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8:2정도로 이론 위주였던 공업고등학교 교육에서 실기 교재를 발간하고 실기 교사도 확충하며 졸업을 위해 반드시 기능급수에 따라 기능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했다. 재학 중 정밀가공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연간 10만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관련 기업으로 하여금 자격증 소지 졸업생을 우선 채용토록 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당시 공업고등학교의 입학자원은 상위 약 10% 이내의 우수한 학생이 가는 곳이 되었고 이들은 지금도 사회의 곳곳에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숙련기술인 출신 사회적 리더들은 현재까지 대한민국명장이 679명, 숙련기술전수자 140명, 기능한국인 190명, 국제기능올림픽대회입상자 636명, 우수숙련기술자 622명, 산업현장교수 1057명 등 3324명이 활동 중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안타깝게도 특성화교의 입학률이 매우 저조하다. 최근 10년간 서울지역 고교 수는 일반고가 2013년 183개교에서 212개로 증가한 반면 특성화고는 71개교에서 69개로 감소했다. 기술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의 저하는 해마다 열리는 기능경기대회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가 4월3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다.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기술강국으로서 우리나라 기술·기능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렸던 출발점이 바로 기능경기대회이다. 최근 직면하는 어려운 국제경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진학만이 능사가

아니란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또 국내 노동시장에 있어 고학력 미취업자의 문제는 해묵은 사안이다.

그간의 문자마식 대학진학(진학을 72%)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초등학교 단계부터 조기 직업교육을 통한 진로지도 강화하여 산업구조가 안고 있는 초급-중급-고급 기술·기능인의 수요와 산업별 인력 수요에 대한 공급의 불일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자격취득자에 대해 최저임금이 상으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기능인 우대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 달 4일부터 개최되는 17개 광역 시도 기능경기대회에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원이 제고되어야만 한다. 이를 통해 고학력 미취업자 문제와 재교육에 따른 개인과 기업에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해소할 수 있고, 조기 입직을 통한 일 경험을 근간으로 제2의 기술기능인 출신의 사회적 리더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장

노조 회계 공시가 필요한 이유



기지 수첩
박미경
(자본시장부)

최근 회계업계의 화두는 단연 '노동조합 회계자료 제출 요구'다. 윤석열 정부 이후 노동조합에 대한 회계투명성 강화를 추진하면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회계자료의 내지 제출 요구는 월권"이라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고용부는 노조법 제14조의 자료 비치와 제27조의 노조 의무에 근거해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회계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회계자료 제출 노조에 대해서만 국고보조

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도 정비했다.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노조가 86곳(26.9%)으로 집계됐다. 민주노총은 64곳 중 39곳, 한국노총은 178곳 중 32곳이다.

노조는 회계자료 미제출이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이어지는 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한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걸 말한다. 회계 자료 제출은 단체의 재정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다. 정부가 사업 수행 주체의 요건을 확인하고,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는데 노조가 주장하는 '권리행사 방해'가 무엇을 뜻하는지 의문이다.

실제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5년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총 1521억원(고용부 177억원, 광역자치단체 1344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조합비 연간 세액

공제(15%) 금액도 3700억원에 달한다.

노조 등 비영리법인은 후원금과 국고보조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꼼꼼한 회계감사가 더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하는 건 무책임한 행동으로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가로막는 셈이다.

깜깜이 회계는 온갖 내부 비리로 이어진다. 잇을 만하면 노조비 횡령 및 배임 문제가 불거진다. 노사 법치가 확립돼야 기업 투자가 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노조가 정치적 투쟁을 일삼으며 '회계투명성 강화'에 반대하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특권의식에 불과하다.

노조 본연의 기능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다. 사측에 투명한 회계를 요구하면서 노조 집행부의 회계 자료 제출 거부하는 '내로남불' 그 자체다. 정치적 투쟁을 멈추고, 회계공시 의무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mikyung96@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23일 (음 2월 2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자신만이 아는 재물정보가 소중한 것 같지만, **48년생** 오후 휴식형 저녁을 먹는다. **60년생** 좋은 표정은 자기도 모르게 좋은 운이 다가온다. **72년생** 결론은 내 뜻대로 된다. **84년생** 시대에 맞춘다 해도 옛것을 따라갈 수 있는지는.



37년생 사소한 인연이라도 소중히, **49년생** 협력자를 구하고 일을 진행. **61년생** 속명은 바꿀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운명이라는데, **73년생** 드러내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고들 있다. **85년생** 참으면 편하다.



38년생 떠난 인연에 연연해하지 마라. **50년생** 마음이 평화로운 하루. **62년생** 운동과 휴식이 겸비될 때 업무능력과 효율성도 증가. **74년생** 일에 치여 삶을 살것 당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도록. **86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리니 행운이 따른다.



39년생 좋은 재물취득의 정보를 얻는다. **51년생**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있겠다. **63년생** 남은 노후를 위해 지금이라도 연금을 준비. **75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 **87년생** 책임감이 강하지만 인달성향도 있으니 신중.



40년생 오랜 적선이 드디어 내게로 돌아온다. **52년생** 퇴직금이 있어 희망이 있다. **64년생**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도전. **76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종일 운전 주의. **88년생** 퇴직후 편하게 살고 싶다면 좀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41년생 집안청소를 적극적으로. **53년생** 파란색 옷이 행운을 불러오니 기본전환이 된다. **65년생** 사무모임에 시큰둥하지 말도록. **77년생** 비가오고 바람이 불어대니 쉬어라. **89년생** 살다보니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부분도 있는데.



42년생 먹고사는 걱정을 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 축복인가. **54년생** 자식이 맘에 안 들어도 내가 낳았다. **66년생** 소리로 없는 적막강산. **78년생** 부모님이 전적으로 믿어주시 힘입니다. **90년생** 누구나 가슴에 품은 뜻이 있게 마련.



43년생 살아보니 조상님부모님 생각이 간절하다. **55년생** 빛을 내서 빛을 갚는 형국. **67년생**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들 남배 당한다. **79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해야. **91년생** 꽃 봄비가 내리니 세상이 환하다.



44년생 탓보다는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 가라. **56년생** 직장에서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 온다. **68년생**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법이다. **80년생** 삶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 **92년생** 겸손함을 키우고 분별하는 생각을 들여보면 발전이 온다.



45년생 비빌 언덕이 절실. **57년생** 이간질하지 않는 것 비려동물학대하지 않는 것도 품격이다. **69년생** 불평을 떠드는 것도 소용. **81년생**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데 모르는 곳에서 도움을 준다. **93년생** 절약한다면서 남 피해주지는 말아야.



46년생 지하철에서 계단조심. **58년생** 부드러움 보다 강하게 나가야 하는 날. **70년생** 일하고도 고맙다는 소리 못 듣는다. **82년생** 뛰어난 아이디어로 주변 사람들을 돕는다. **94년생** 실력을 키우다보면 길상한 복은 자연히 빛을 따라 모인다.



47년생 남의 험담을 들어도 조용히. **59년생** 마음자리를 바꾸면 개운이 된다. **71년생**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 **83년생** 팔자의 특징된 속성의 영향을 받는 것 즉 속명이라 볼 수 있다. **95년생** 인생이 박하다 해도 선함이 모이면 부귀의 빛이.

김상회의四季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 당연히 헤밍웨이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유명 단편소설인 노인과 바다는 커다란 물고기를 잡으려 했던 노인과 상어의 힘겨운 싸움을 그리고 있다. 청새치를 잡기위해 바다로 나간 노인은 80일이 넘도록 허탕만 쳤다. 그러다가 그토록 고대하던 커다란 청새치를 잡게 되는데 어디선가 상어가 나타나 공격을 받게 된다. 노인은 작살과 노, 몽둥이를 사용하며 상어를 무찌르는 데는 성공하지만 청새치의 대부분을 빼앗기게 된다.

인생의 목적을 이룬 꿈인 청새치와 상어로 대면되는 시련 고난과의 싸움을 대입해볼 수 있다. 오랜 기다림 속에 목적을 이룬다 해도 그 과정은 시련과 고난이고 결국 어렵게 구한 것을 빼앗기지만 굴복하지 않고 맞서 나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헤밍웨이는 소설의 한 구절처럼 "인간은 파멸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 (A man can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라는 메시지를 던져줬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 반드시 노인만은 아닐 진데 각별히 노인을 등장시켰다. 이유가 있으리라 본다. 살만큼 산 나이가 되면 대중 포기에 익숙할 법인데 젊은 시절의 힘과 근육이 빠져나간 나이에도 그는 상어에 굴복하지 않았다. 고난에 맞섰다. 대한민국은 노령해태적용 연령의 상향을 고민 중이다.

만65세가 되면 지하철무임승차 등의 혜택을 주어 왔는데 계속 심화되는 지하철적자 해소의 한 방법으로 노령연령을 65세에서 70세 정도로 상향하겠다는 움직임이다. 과거에 비해 65세를 노인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인협회에서는 반발이 심하다고 한다. 각자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지하철 무임승승 연령문제를 보면서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떠올렸다. 험난한 바다 상어 대적하는 그 노인을...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새벽 5시 30분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손호성 저 | 스도쿠66 | 10,000원

		6			
		2		3 9	
6		8	9		
		9 5 1			
					8
		3	5		7
1 4		9			
			4		

				9 8	
		1		7	
9					1
5 4			7		
			9	1	
				3	7 2
	2				6
			6		
		9 8			3

정답

6	9	2	7	9	1	8	2	8
8	8	9	2	6	2	7	1	9
2	7	1	9	8	8	9	6	2
1	8	9	9	2	2	8	7	6
8	9	7	1	9	6	2	2	8
2	2	6	8	8	7	9	9	1
9	1	2	6	7	8	2	8	9
9	6	8	2	2	9	1	8	7
7	2	8	8	1	9	6	9	2

1	2	2	9	7	8	6	9	8
8	7	8	2	6	9	9	1	2
9	9	6	8	1	2	8	2	7
2	2	9	8	8	7	9	6	1
8	9	7	1	9	6	2	2	8
6	8	1	9	2	2	8	7	9
9	1	2	7	9	8	2	8	6
7	6	9	2	8	9	1	8	2
2	8	8	6	2	1	7	9	9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15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5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소·부·장 으뜸기업 23곳 선정 글로벌 기업 육성 '밀착지원'

산업부, 5년간 기술개발 등 지원
인허가 패스트트랙도 적용키로
“소부장 자립화 성과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방안 더 촘촘히 추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으뜸기업 23개사를 새로 선정했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150개) 분야 국내 최고의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22개사를 최초 선정할 이래 올해까지 총 66개사가 선정됐다. 정부는 선정된 기업에게 기술개발,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반도체(9개사), 디스플레이(4개사) 등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전략분야 관련 기업이 다수 선정됐다.

으뜸기업에게는 향후 5년간 범정부 차원의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 진출 등 전 주기에 걸쳐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한다.

산업부는 1·2기 으뜸기업에 평균 3~4년간 100억원 내외의 규모로 진행된 으뜸기업 전용 연구개발(R&D)을 비롯

해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실증 평가, 정책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인허가 패스트트랙도 적용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년 으뜸기업 지정식’ 축사를 통해 “우리 산업의 근간인 소부장 산업 발전을 위해 소부장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공급망으로 밀접한 국가와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기술개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통해 기술 확보, 생산역량 확충, 협력의 생태계 조성 등 소부장 자립화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소부장 자립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핵

심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부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더욱 촘촘히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도전적 R&D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화·수출까지 패키지로 일괄 지원하며 국가첨단산업단지는 물론 소부장 특화단지도 추가로 지정해 소재 부품장비의 글로벌 혁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우리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을 4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이번 한일정상회담 및 일본의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 해제 등을 계기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및 공급망 공동 대응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핵심 원자재 및 에너지 등을 해외에 주로 의존하는 양국의 협력은 양국 공급망 안정성 및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장 차관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신산업 분야 공급망 및 기술협력, 저탄소 철강 생산기술, 친환경 선박기술 등 탄소중립 공동 협력, 양국 경제계의 교류 협력사업 및 산학연 간 공동 R&D 및 기술인력 교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화진 환경장관, 美 UN 물 총회 참가

본회의서 기초연설 등 일정 소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2일(현지 시간)부터 24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2023 유엔 물 총회에 참가한다.

유엔 물 총회는 1977년 아르헨티나 마르 델 플라타에서 유엔 내 물 관련 논의를 최초로 시작한 이후 46년만에 열리는 공식 회의다. 네덜란드와 타지키스탄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총회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물 행동 10년(2018~2028)의 이행에 대한 종합적인 중간 점검을 위한 자리로, 유엔 회원국 정부, 유엔·국제기구, 학계·비정부기구(NGO)·기업 등 물관

련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게 된다.

한국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아시아물위원회,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 연구교육센터, 유네스코정부간수문프로그래프 한국위원회, 한국물포럼, 한국환경연구원 등이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한다.

한 장관은 이번 총회에서 ▲본회의의 기초연설 ▲‘물 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SDG6)’ 달성 촉진 정부간 세미나 ‘및’ 과학기반 글로벌(국제사회) 물 평가’ 고위급 회의 참석 ▲환경부-세계자연보전연맹(IUCN)-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협약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양자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신하은 기자 godhe@

고용부, 中企에 재택 등 유연근무제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1년간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독려하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오는 23일부터 희망 기업을 모집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또 유연근무 시 필요한 프로그램 등 인프라 구축비도 최대 2000만원도 지원된다.

재택근무 도입에 관심 있는 사업장

400곳에 대한 무료 컨설팅도 진행된다.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싶어도 경험이 없어 망설이는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제공된다. 올해는 2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3주간 1차 신청을 받고, 앞으로 총 4차에 걸쳐 희망 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컨설팅 내용은 ▲도입범위, 운영방식, 적합직무 분석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재택근무에 필요한 정보기술 기반 구축 ▲기타 재택근무 지원사업(간접노무비, 인프라 구축비) 및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과의 연계 지원 등이다.

/신하은 기자

소상공인 창업교육 운영 주관기관 모집

중기부·소진공, 내달 12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청년 예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콘텐츠 기반의 현장형 창업교육을 운영할 콘텐츠 기반의 장인학교 주관기관을 모집한다. 기간은 23일부터 4월 12일까지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콘텐츠 기반 장인학교는 청년 예비 소상공인을 대

상으로 성공한 지역기업이나 민간기관이 전통적 소상공인 영역에 새로운 콘텐츠 영역을 접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이론보다는 현장형 실습 위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제품 제작, 팝업스토어 운영 등 실천창업과 장인도제, 사내벤처 등의 인턴십 과정 등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쌈·샐러드에 활용... '수삼' 소비촉진 나서

농진청, 수삼 소비확대 방안 제시
‘기능성 채소’로 활용방법 제안

농촌진흥청이 소비자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외면받아온 수삼을 기능성 채소처럼 유통시켜 소비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한다.

농촌진흥청은 22일 인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삼 구매와 섭취 방식에 대한 소비자 조사를 진행하고, 소비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인삼은 주로 홍삼류와 음료 등 가공품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가공하지 않은 인삼인 ‘수삼’ 소비는 줄고 있다.

실제로 약 10년 전에는 전체 인삼 소비량의 50% 이상을 수삼이 차지했으나 2020년에는 21.2% 수준에 그쳤다. 주로 인삼 매대시장 등에서 수삼을 판매하다 보니 접근성과 활용성이 떨어지고, 수삼을 가공용 소재로만 인식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농촌진흥청은 수삼이 기능성 채소

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연구하고자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수삼 구매와 이용 방식, 채소로써 활용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이내에 수삼을 구매한 적이 없는 응답자가 70% 이상에 달했다. 수삼 구매를 망설이는 요인으로 ‘활용법을 모르겠다(46%)’, ‘가격이 비싸다(24%)’는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 깨끗하게 씻은 수삼을 적은 양씩 나눠 포장한 뒤 채소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직접 먹어보게 한 결과 응답자의 58%는 ‘시식하고 난 후 채소로 수삼을 구매할 의향이 높아졌다’라고 답했다. 또 94%는 ‘삼계탕에 넣는 수삼(3년근)처럼 크기가 약간 작고 저렴한 수삼은 채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답했으며 68%는 깨끗하게 씻어 별도 용기에 담아 유통하면 구매 빈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삼 간편활용법으로는 ▲수삼을 마늘처럼 썰어 고기류를 먹을 때 쌈의

고명으로 곁들이는 방법 ▲잘게 썰어 초무침에 넣거나 ▲샐러드 위에 올려 먹는 방법 등을 사용했다.

특히 40대 이상, 주로 음식을 조리하는 소비층에서는 기존 생각과 달리 채소로 섭취한 수삼이 매우 맛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수삼을 육류, 튀김류에 곁들이면 고급스럽고 건강한 느낌을 줄 것 같다는 의견, 다양한 조리 방법이 알려지고 구매가 쉬워진다면 기능성 식재료로 널리 활용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홍윤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장은 “인삼은 피로 해소와 기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명품 농산물로 세척, 포장, 유통 방식을 달리 하면 소비 변화를 충분히 이끌 수 있을 것이다”라며 “농촌진흥청은 수삼을 채소처럼 유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올해부터 품질 관리와 상품화 기술을 산지유통센터에서 실증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검찰, 전두환 손자 폭로한 ‘비자금 의혹’ 수사 착수 /사진 뉴시스
▲ 중고거래 사기로 200명에게서 1억원 뜯은 30대...경찰 체포

▲ 광주 학생들 유네스코 본부서 “인종 차별 없는 세상” 외침
▲ JMS 정명석, 구속 5개월간 265회 접견...일 평균 1.7회



▲ “민원 넣겠다” 협박...건설현장서 1000만원 뜯어낸 노조원 4명 입건
▲ 이태원 참사 유족 “금융조치 이유 뭐냐”...검경 사과 촉구 /사진 뉴시스



[경제종합] 네이버카카오 이사 임금삭감 등 건축경영 나서 04



Life

[라이프] 제과-바이오 투트랙 전략 오리온 '제2 도약' L1



대입 '가해자 감점' 가능할까... 교육부 학폭 근절대책 '촉각'

'정순신 사건'으로 학폭 반영 논의 대학가, 학폭 근절대책 예의주시 일각에선 엄벌주의 방식 우려도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이 학교폭력(학폭) 전력에도 서울대에 무난히 입학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교육계와 대학가에서는 대입 전형에서의 학폭 반영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교육부가 학폭 근절대책 추진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학폭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 강화와 대입 반영 방안 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학폭 근절대책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김천홍 대변인은 "제기되고 있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이른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현재 수능 성적으로 정시를 선발하는 대학 중 실질적으로 학폭 이력을 반영하

는 대학은 서울대가 유일한 수준이다. 이외 대학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미흡해 사실상 감점 처리되기 어렵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2023학년도 학교폭력 대입 반영

현황'에서도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서울 소재 대학은 6개 대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과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면 학교 생활 당시의 학폭 이력은 묻히는 구조이다.

교육계에서 학폭 징계 사항과 대입 연계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대학들은 학폭 감점 조치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한양대 관계자는 "현재로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나 방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해야 될 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통해 정시 수능전형에서의 학폭 결격 사유 강화를 시사했다. 다만 고려대 관계자는 "당장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신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학폭 근절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대학들은 교육부의 방침이 나올 때까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방침을 기다리고 있다"며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교육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엄벌주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학폭 징계 사항을 대학 정시까지 연계한다면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법 모색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학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주체 간의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을 통한 공동체 통합의 방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울시민 47%, 시의회 의정활동 '부정평가' '대입 나침반' 3월 학평 실시... 120만명 응시

모든 평가항목서 부정 응답 우세 시민에 의정 참여 기회 제공해야

서울시민들은 제10대 서울시의회의 의정 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정책개발과 새로운 비전 제시, 민생현안 해결, 시민 권익 증진 및 불편해소, 의정활동에 시민 민의 반영 등 전 분야에서 '잘못했다'는 응답이 '잘했다'는 응답을 압도했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작년 11월 21~25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

상 성인 642명을 대상으로 '제10대(2018~2022년) 서울시의회 의정 평가 및 제11대(2022~2026년) 의정 방향 설정을 위한 서울시민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 비율은 17%로, '잘못했다' (46.7%)에 비해 29.7%포인트 적었다. '보통이다'는 36.3%로 집계됐다.

서울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대해서는 부정 응답 비율이 37.9%로, 긍정 응답(16.7%)보다 약 2.27배 많았다.

모든 평가 항목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우세했다. 부정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민생현안 해결 분야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8%가, 시민 권익 증진 및 불편해소 항목에서는 43.8%가, 의정 활동에 시민 민의 반영과 관련해서는 43.9%가 '잘못했다'고 답했다.

시민들은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의정활동 분야 1순위로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서울시의회의 의정 역량 제고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시민들에게 의정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이 38.2%로 가장 많았다.

/김현정 기자 hjk1@

오늘 오전 전국 고등학생 대상 실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전국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3월 학평)를 실시한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 평가로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4개 교육청에서 번갈아 주관한다. 이번 3월 학평은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해 전국 17개 시도(전북 고1 제외)의 1915개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 120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학년별로는 1학년 41만명, 2학년 40만명, 3학년 39만명이 응시한다.

3월 학평은 학생들에게 대학수학능

력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하고, 대학진학과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성적전산처리를 의뢰해 채점, 성적 분석, 성적표 제공을 진행하는 등 제반 보안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문제지를 17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이 학생들에게는 성적표가 제공되지 않지만 각 학교에 제공되는 성적 분석자료를 통해 본인의 성적을 추정할 수 있다.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조정 등에 따라 온라인 문제지 제공 방법은 변경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고양시, LH와 글로벌 명품도시 조성 '맞손' DMC 입주기업 모집 스마트미디어 등 육성

1기 신도시 도시재생사업 협력

고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가 21일 글로벌 명품도시 조성 및 도시정비 방안 등을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양시와 LH가 ▲일산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균형발전 등 도시정비 방안 마련 ▲고양창릉 3기 신도시 및 고양장항 공공주택 등 진행 중인 LH 사업지구와 삼송·원흥지구 등 준공된 LH 사업지구의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공동모색 ▲고양시 경제자

유구역 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고양시는 자족도시 실현과 글로벌 명품도시 조성 및 도시정비 방안 등에 대해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고양시와 LH는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식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초기부터 지원·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 시티에 위치한 'DMC 첨단산업센터'와 'DMC 산학협력연구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두 센터는 DMC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과 연구소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설립하고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입주 대상은 ▲메타버스 ▲확장현실 ▲스마트미디어 등 DMC 전략산업 분야 제품·기술·콘텐츠를 개발하는 중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과 서울 소재 대학 부설 연구소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32 | 해질 / 18:46

3월 23일(목) 음력: 2월 2일

수도권 날씨 13 ~ 21°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0/21, 동두천 11/22, 가평 10/20, 파주 10/20, 서울 13/21, 양평 13/20, 인천 11/18, 수원 14/20, 용인 14/20, 평택 12/1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시진핑·푸틴, "북에 대한 제재·압박 바람직 못해" /사진 뉴스1
▲독일, 미국처럼 중국에 첨단기술 수출 통제 추진

▲美, 기시다 우크라이나 방문에 "강력 지지...세계 선도"
▲"번기 코앞에 부엌"...日, 9㎡ 초소형 아파트 유행 중



▲유엔총회 의장, "인종차별도 바이러 스텍처럼 매년 신종 확대" /사진 뉴스1
▲中 베이징 인구 19년 만에 감소... "생활비 상승·결혼 회피"

Only for Neo owners.

초대합니다
초대형 8K가 선사하는
환장, 그 이상의 감동으로

SAMSUNG



자세한 제품 정보는
삼성닷컴에서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응원합니다

2023 Neo QLED 8K

*2006-2022년 세계 TV 판매 점유율 1위, OLED 기준 | 17년 연속 세계 판매 1위